

북한주민의 사적 욕망*

최완규(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노기남(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 서론

북한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미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내면 세계도 주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여기서 다룰 사적(私的) 욕망은 북한 사회에서 정치노선에 따라 요구하는 혁명적 인간형과는 거리를 두고, 경제난 이후 사적 영역(private sphere)의 확산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개인의 욕망을 말한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Homo Desidero)’라는 측면에서 보면, 존재의 이유, 행위의 동인(動因)은 욕망에서 찾아진다.¹⁾ 이

* 이 논문은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5-079-BS0078).

1) 심리학자 매슬로(A. H. Maslow, 1908~1970)는 욕망을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5단계로 나뉘서 설명한다. 1~4단계는 ‘결핍욕구’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로 결핍 해소나 긴장 완화를 추구한다. 5단계의 자아실현이라는 ‘성장욕구’는 일시적인 해소가 아니라 더 큰 성취를 위해 더 높은 긴장을 즐기는 최고 수준의 욕구이다[김경훈, 『대한민국 욕망의 지도』(서울: 위즈덤하우스, 2006),

글에서는 인간행위를 불러내는 욕망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 출세 등 개인의 욕망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표출하고 자기를 실현하는지를 반영한 ‘인간 모습’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트로츠키는 『배반당한 혁명』(1936)에서 사회주의가 이름값을 하려면 탐욕이 개입되지 않는 인간관계, 시기와 술책이 없는 우정, 저속한 계산이 없는 사랑이 실현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소련 관료집단 내에서 권력과 돈이 이성 관계에 미치는 행위가 혼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에서 개인의 욕망을 극도로 억압하고, 공산주의 품성을 강조한 이상적 인간형을 교양해왔지만, 사적 욕망이 분출하는 비사회주의적인 군상을 없앨 수 없었다. 게다가 경제난 이후로는 기존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사적 욕망의 행위가 더욱 늘어났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에는 양면성이 있고, 대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둘의 사이에는 상호영향을 미치는 어떤 맥락이 있어 대상을 규정하게 한다.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속에 사는 개인의 생각과 의식까지 파악할 때, 사회 변화의 역동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연구에서 개인과 사회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이제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삶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내면세계까지 발전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치·경제적인 이해의 고리는 타산에 의해 쉽게 무너지지만,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이해는 다층적인 관계와 교류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절실한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북한 문예연구에서 ‘욕망의 사회적 실현’이라는 코드로 문학과 사회를 아우르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것은 북한 문예작품이

45~50쪽 재인용].

개인의 문제를 내면세계의 심층으로 파고들어가 쓰는 경우가 드물어 ‘욕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의 문면에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진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작품의 내면의 욕망을 읽을 수 있다. 오영재 시인이 겪은 2000년 8·15 이산가족 서울 방문의 기쁨과 충격은 시로 쓸 수 없었지만, 장기수 복송을 소재로 한 연작시 “아쉬워도 보람 있는 삶: 한 비전향장기수에게”(『조선문학』, 2001.5)는 발표했다. 시인이 체험을 간접적으로 투영하여 비전향장기수를 형상한 의미를 포착할 때, 삶의 심층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일기 형식의 1인칭 소설인 한웅빈의 “스물한 발의 ‘포성’: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의 일기 중에서”(『조선문학』, 2001.4~6)가 있다.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장까지만 보면 주인공 ‘나(박철)’가 투철한 혁명적 군인정신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상혁명 중심의 주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3장의 대단원에 가서 전체를 다시 보면, 주인공이 소대장 전호진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시점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반전의 작품구성은 주제(theme)의 폭을 넓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하고, 작품 이면의 욕망을 징후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바흐친이 말하는 소설에서 ‘시각의 잉여’로서, 작품 속 화자보다 더 많이 보는 청자의 눈을 염두에 둬 뜻한다.

현실에서는 직설할 수 없는 생각과 욕망은 간접적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고, 개인의 욕망은 살아있다는 일차적 징후가 된다. 개인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내면을 읽어낸다면, 북한과 같이 집단주의에 입각한 계획적 사회가 ‘계획하지 않은’ 사회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어디에 있는지 추론할 수 있다.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욕망의 내면세계는 더욱 억압될 수밖에 없다. 북

한 작품에서 사랑의 욕망은 사회정치적인 미덕으로 포장되어, ‘정제된 사랑’만 보여주고 교양한다. 또한 사건은 미해결로 남겨두지도 않는다. 이 닫힌 구도 속에 나오는 완결의 모델(전형)들은 실패와 좌절, 부정적인 것, 삶의 찌꺼기 같은 복잡하고 미묘한 개인 욕망의 이미지들을 거세한다. 그 반면에 성공적·긍정적 모델의 열정 속에는 개인의 사회적 실현 욕망이 편승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사로운 것과 정치적인 것은 상호관계 속에 놓여 있다. 또한 일상생활의 관계들에서 ‘말해진 것’은 ‘말해지지 않는 것’에도 기반을 두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텍스트에서 드러나거나 숨겨졌거나 그와 같은 욕망의 편린들을 포착하여, 그 사회적 의미를 그려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론 중 제2절은 사회상을 반영하는 욕망을 유형적으로 고찰하고, 제3절은 욕망을 통해 사회체제의 변동 가능성을 진단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사회변화의 의미를 찾아볼 것이다. 북한은 아직 닫혀 있는 사회이지만, 변화와 역동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북한사회를 보는 방편으로서, 그와 같은 심층적 텍스트 분석은 북한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 다룬 작품의 시기는 김일성 사후의 김정일 시대이며, 북한 작품의 특성상 표출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보완하기 위해 텍스트 자체의 분석과 면담조사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²⁾

2) 연구자가 직접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실시한 집중 면담 총 26회와 함께, 3차에 걸친 조·중 접경지역 현장조사(2006~2007년)에 의한 자료를 반영한다.

2. 욕망 유형과 사회상

지라르의 ‘욕망의 이론’은 주체가 성취하고자 하는 대상과의 사이에는 동기를 유발하는 매개자(매개항)가 있어,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욕망은, 프로이드가 말한 이드(the id)와 같은 내면 에너지의 충동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

욕망(慾望, desire)은 주체와 대상 사이의 결핍(欠)을 바라고(望) 구하는(求)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행위이다. 욕(慾 또는 欲)의 미세한 갈피들(谷)은 사회적 관계에서 동기가 만들어지고 자가 발전적으로 증폭되어 그것이 밖으로 분출하는 행위를 낳는다.

여기서 가설적으로 욕망을 표출함에 있어서 북한의 정치 및 사회 현실과 무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유형화했다. 동시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욕망의 새로운 흐름이 생겨남을 염두에 두었다. 북한의 현실은 경제난 이후 배급제 등 기존의 국가 기능이 무너지고 생존 문제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장마당을 통해 자생적 시장경제가 형성되고 여러 측면에서 체제 변동의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인간개조까지 정치노선으로 삼고 있는 혁명적 이념 지향 국가이다. 현시점에도 기존의 정치기제가 선군혁명을 모토로 한 사상과 이념을 통해 개인의 사적 영역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사적 욕망은 집단주의와 어떤 형태로든 길항작용(拮抗作用)을 하고 집단과 타협 또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 다시 말해 사적 욕망의 흐름이 북한 사회변화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뒤집어 고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출세와 생존을 위한 욕망을 정치 지향형, 기술 전문가형, 생존 경제형 등 세 가지 전형으로 유형화했다.³⁾ 작중 인물이 결핍된 것을 향한 지향적 행동에서 모델로 하는 매개항

을 분석할 때, 사적 욕망을 표출하는 주요 요소들이 명분과 이념 지향적인 것인지, 물질 지향적인 것인지, 그 주류적 향방과 이면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북한사회변화의 핵심에 이념과 돈(경제)은 이율배반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북한은 변화의 바람을 현실로 수용하면서도 ‘모기장론’과 같은 체제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사상투쟁을 강화했다. 이념은 기존 정치체제를 수호하느냐, 돈은 집단주의를 와해시키고 새로운 경제 흐름을 만들어 세계시장 속에 편입되느냐를 결정하는 체제변혁의 가능성과 성격을 가늠하게 한다.

1) 정치 지향형과 부패상

북한이 여느 사회주의권과 다른 ‘특수성’을 말하면, 당과 행정조직에 의한 집단주의가 주요 요인이 된다. 한때 일등 신랑감은 ‘군당지도원’이라 했고,⁴⁾ 사람들은 당원자격을 보증수표처럼 생각하여 관료를 선망하는 쪽으로 출세로 삼았다. 그만큼 북한의 사회구조가 노동자계급 위에 군림하는 지배계층의 모순이 많아지고, 그것은 비공식 영역이 만들어지는 틈이 되었다.⁵⁾

3) 전형론은 문학사회학의 주요한 방법론이다. 루카치가 말한 전형성은 역사적인 ‘지금 여기’ 현상들을 말해주는 ‘개별자’와 사회현실을 총체적 범위로 꿰어보는 ‘보편자’를 가장 잘 매개해주는 요소들, 예를 들면 행동, 상황, 인물 등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전형성을 창조함으로써, 어떤 구체적인 인간들의 운명 속에서 그들이 속해 있는 특정 시대, 국가, 계급 등을 가장 잘 표출하는 ‘어떤 역사적 상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구현시킨다는 것이다. 위에서 분류한 유형은 자의적이지만, 체제위기 속의 생존방식과 관련하여 면담을 통해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들을 뽑은 것이다.

4) 임순희, 『북한 여성의 삶』(서울: 해냄, 2006), 30쪽.

거기에 북한의 체제적 모순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간부들의 문제로 호도한 작품 『영생』을 보자. 이것은 수령영생주의로써 김정일 시대 모순들을 정당화한다. 외교일군 문선규는 김일성, 김정일의 판단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는 수령과 지도자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그에 일치하는 의견 속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정세를 파악하면서 1994년 6월 카터의 방북을 준비한다. 또, 정무원 총리는 경제사업이 안 되는 원인을 ‘적들의 경제적 봉쇄나 군사적 공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간부들의 정신상태’에 걸려 있다며 간부들이 문제라고 본다. 정무원 책임제, 중심제에 대해 강조해왔으나, 정무원 책임일군들은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구태의연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라의 경제문제를 풀기 위한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여 김일성이 직접 지도해주면 경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⁶⁾

이처럼 고위급은 ‘수령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실책을 중간간부들 문제로 돌린다. 이런 가운데 권력 지향적 인간들의 욕망은 권력을 이용해 자기 삶의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

한웅빈의 “스물한 발의 ‘포성’”을 살펴보자. 식량과 에너지는 북한 고난의 현주소이기에, 발전소 건설은 시대를 가장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주요 현안이 된다. 이때, 과거 혁명적 건설과 차별은 어디에 있을까. 작가는 “군대는 사민(私民)과 어떻게 다른가”로 이 질문에 대답했다.

“동문 군대요, 사민이요?”라고, 성난 소대장이 물었을 때, 박철은

5) 한 사람의 노동자 위에 놓고먹는 사람이 20~30명이 된다. 한OO, 개별면접(2007. 4.20).

6) 백보흠·송상원, 『영생』(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97), 302쪽.

“군댁니다!”라고 씩씩하게 외쳤다. 그런데 소대장은 박철을 힐난하며 군대와 사민의 다른 점을 되물었다.

병사는 전투를 위하여 산다. 그러니 이것이 사민과 다른 점이라는 것일까. …… 중략 …… 사민들도 일을 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전투라고 부른다. ‘70일전투’, ‘100일전투’, ‘200일전투’ …… 좀 많은가. 그들이 하는 일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이며 ……

박철은 답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작가는 몇 가지 사건과 다른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다. 난공사를 악조건 속에서도 해낸 것을 사령관이 직접 보고, ‘역시 군대가 군대야’라고 말한다. 그것을 보며, 박철은 군대의 진짜 모습을 직접 경험하는 세계로 들어간다. 물길 굴공사가 막장에 이르렀는데, 자재가 보장되지 못했다. 소대장은 침묵으로 ‘레루길’을 만들게 하여 ‘버럭’을 실어 나르는데, 또다시 양수기가 고장 나는 돌발 사태가 벌어진다. 막장은 온통 물이 차오르는 극한상황에서 과업을 완수한다. 여기서 보면, 최고의 군인정신으로 말한 정치적 이념을 매개로 해서, 개인은 거기에 맞춤 인간으로 추동된다. 욕망의 정치적 왜곡인 셈이다.

하지만 그런 내용보다 구성을 심층 분석하면, 작가의 내적 요구, 즉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군대는 사민과 어떻게 다른가”, “군대의 철학”, “스물한 발의 ‘포성’ ” 등 3장으로 이뤄진 일기형식의 1인칭소설이다. 제2장까지만 보면, 이 소설은 주인공 ‘나’가 1인칭시점에서 투철한 혁명적 군인정신을 깨닫는, 소위 사상혁명성을 주제로 한다. 그런데 제3장의 대단원에 가서 보면, 주인공이 발전소 건설 지휘자인 소대장 전호진임을 비

로소 드러낸다. 이렇게 다시 읽으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시점이 되는 셈이다. 작가는 주제를 복선으로만 암시하다가, 마지막에 독자의 예상을 뒤엎듯이 급반전시켜, 강렬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이로써, 구성에서 일종의 둔증법(頓證法)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제3장 “스물한 발의 ‘포성’ ”에서 소대장은 모범이 되는 군인으로서의 영웅적 전형으로 그려진다. 매사에 날카로우며 면도칼이란 별명이 붙고, 소대 전체가 장령이 될 사람으로 인정한다. 상등병은 소대장동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은 오직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닮아야 한다.”⁷⁾ 분대장은 소대장의 수첩을 슬며시 본 이야기를 꺼내며, 소대장이야말로 가장 최고사령관을 닮았으므로 그를 닮는 게 그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첩에 소대장이 쓴 결의 중에, “나는 이제는 조선인민군 군관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군대, 당의 군대의 지휘관이다. 내가 대원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휘관이 될 수 있는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 그러나 나는 한 가지만은 확신한다”까지만 보았던 것이다.

박철은 그 한 가지의 확신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막장에서 버력을 실은 광차들이 쇠뿔줄이 끊어져 경사진 길로 질주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소대장이 온몸을 던져 위기를 막다가 장렬하게 죽은 뒤에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박철이 미처 보지 못했던 기록은

7) ‘최고사령관’만 닮아야 한다는 ‘수령’ 모델은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문제이다. 이를 위반하면 ‘혁명화’의 대상이 되어 책벌을 받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혁명화’에 걸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따라서 “소대장 동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작가가 재해명하는 장치를 빼놓지 않았다. 혁명화와 관련해서는 공영길 취재, 최진이 정리, “‘제18호 관리소’의 흑막(제1회),” 『림진강』, 제2호(2008.3), 16쪽 참조.

“나는 …… 한 가지만은 확신한다.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 조국을 위하여 ……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에 바치기 위하여 …… 있다는 것”으로 밝혀진다.

그런데 소대장의 죽음으로써 발견하게 된 생명의 의미는 박철에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각인된다. 군대가 전위가 되어 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죽으나 사나 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에 머무른다. 여기에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에 바치기 위하여 …… 있다는 것”을 덧붙임으로써, 소대장의 전형은 ‘신성하고 아름다움’을 말하는 보편적인 의미로 확장된다. 이 반전에서 작가가 말하는 것은 시점상의 전략에 숨겨져 있다.

아, 그러니 그에게서는 우리가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 조국이었던 말인가. 버럭물에 젖고 돌가루를 뒤집어 쓴 키다리 분대장이, 등글등글한 말주변 없는 강정희상등병이, 버럭물에 얼룩져 어스비슷해 보이는 구대원들이 그리고 내가 …… 정녕 가장 신성한 것이었던 말인가.

여기서 1인칭시점이나, 1인칭관찰자시점이나에 따라, 주인공과 주제를 달리 볼 수 있게 한다. 1인칭관찰자시점에서 보면, “죽으나 사나” 장군님과 조국 하나에 매달리던 이념을 관찰자를 포함한 ‘우리의 삶’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향해 열어놓게 한다.

따라서 죽으나 사나 하나에 집착하던 ‘이념’에서 자유로워진다. 단번에 병사 한 사람의 생명이 신성한 존재로 되었다. 최고사령관을 가장 닮은, 소대장의 면도날 같이 엄격한 전형성이 병사들 가슴마다 안겨들어, “병사들을 닮은 얼굴”로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함으로 하여, 이념의 경직성을 씻어내린다.

여기에 담긴 작가의 욕망은 권력의 공적 담론 이외에 새로운 틈새를 만들려고 한다. 작가는 당과 ‘영원한 동행자’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⁸⁾ 맹종하는 충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 다시 말해 집단의 이념에 거세당한 개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이것은 바로 작가의 현실 비판적 글쓰기 욕망이기도 하다.

쓰자! 써내야 한다!/ 그러니 다부작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은 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셈이다./ 나의 열망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싸운 우리 주인공들인 원형인물들의 생사를 접하면서 현실적인 것으로 굳어졌다. …… 작가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감정, 자기의 리상을 체현시킬 수 있는 전형적인 성격을 발견하게 될 때 비사한 창작적령감에 휩싸이게 되며 번뜩이는 환상에 끌려 붓대를 달리게 된다./ …… 써내고 말 것이다. 욕망도 욕심도 쫓다. …… 우리의 통일운동에 경험도 주고 교훈도 주고 정치도 철학도 있고 눈물도 웃음도 있는 특색 있는 작품을 내놓자. …… /나는 이렇게 한껏 욕심을 부려보았다.⁹⁾

이처럼 북한에서 작가가 드러내놓는 욕망은 정치 지향형의 이념일 수밖에 없다. “창작적 대답성은 주관적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사상을 신념으로 체득한 작가에게서만이 발양될 수

8) 노귀남, “체제위기 속의 북한문학의 대응과 변화,” 『민족문화논총』, 제29집(대구: 영남대, 2004), 7~11쪽 참조.

9) 허문길, “욕망, 고민, 교훈…: 다부작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을 창작하고,” 『조선문학』(2006.4), 73~74쪽.

있는 것”¹⁰⁾을 누누이 강조한 것은 작가의 주관적 욕망에 의한 글쓰기의 한계를 창작지도일군의 기술적 지도를 통해 극복하도록 김정일이 지시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¹¹⁾

그렇지만 작가는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을 간접으로 쓰려는 욕망을 가진다. 그래서 작품 이면을 징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치성의 “인생의 한여름에”(『조선문학』, 2006.6)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적 유용과 다양한 욕망의 양상을 보여준다. 여기서 2002년 7·1조치 이후 공장·기업소·기관 등 각 단위별로 어떻게 ‘생존 경제’를 꾸리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국가가 자원과 식량을 배분하던 일이 마비된 상태에서 개별경제주체가 ‘시장’을 통해 먹고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력갱생’이나 ‘실리주의’ 구호는 단위별로 이뤄지는 생존의 경제행위를 변명하는 말로 이용된다. 다시 말해, 변화된 경제활동으로 인해 개인과 소집단이 유일체제 속의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이때 국가를 위한 자력갱생, 국가를 위한 실리주의는 한갓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인생의 한여름에”에서 전임과 신임의 ‘성 무역국’¹²⁾ 국장이 등장한다.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실리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보여준다.

전임 국장 김유진(60대)은 젊어서 한때 선장을 했던 사람으로 미완

10) 편집부, (머리말) “당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문제성 있는 문학작품을 대담하게 창작하자,” 『조선문학』(1983.4) 4쪽.

11) 김정일, “우리 식의 혁명적 영화창조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영화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4월 28일,” 『김정일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238~252쪽 참조.

12) 북한 내각의 36개 부서 중에 29개 성이 있는데, 여기서 ‘무역성’이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각 단위별로 외화별이가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의 업적을 남기고 직장을 떠났다. 무역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제국 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으로 인해 무역과 운영에 애로가 많았고, 그 영향으로 사업 실적이 제로 상태로 떨어지고 전례 없는 시련을 겪었다. 그때 김유진은 자체적으로 자립하는 길을 찾아내야 했다.

김유진은 몇 해 전에 “가치 있는 수출원천”을 찾아, 유리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재정형편이 펴이고 운영에도 활기가 돌아, 마침내 실적그래프가 ‘상승선’을 그리게 되었다. 이렇게 잘나가는 때에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젊은 세대인 손경후를 후임으로 추천했다.

손경후(40대)는 인민경제대학 재교육을 마감하고 있던 차에 김유진의 추천으로 신입 국장이 되었다. 뜻밖에 ‘과분한 임명’을 받은 손경후는 일종의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업무 인수를 받는 날, 김유진의 애장품인 모형 나무배를 국장실에 그대로 두고 가겠다고 한다. 이름 있는 목각예술가 작품인데, 닳이 없는 ‘미완성품’이다. 현실을 상징하듯, 닳이 없어 안착이 불가능한 배가 어디로 떠돌고 있는 것인가?

손경후는 높은 실적을 쌓고자 하는 실력 중심의 욕심이 있었다. 먼저, 국 내부의 기구를 정리하는 문제를 생각했다. 현재의 관리업무에 비해 인적 지표는 초과된 상태지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 일에 손도 못 대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진다. 일은 ‘선광공업연구소’의 공학연구사 허진숙에게 온 편지에서 시작된다. 편지에 따르면, 득평광산에서 94% 선광공정을 거친 수만 톤의 미광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보기는 버럭에 지나지 않지만, 합성첨가제 ‘MV’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합성첨가제는 적은 양으로도 물질의 결정구조를 변화시켜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 미광 1톤 당 가격과 비교할 때 1톤에서 추출될 첨가제는 백 배 가격이 된다. 현재 이론적으로 담보된 상태에서 연구시험 중인데, 실무 책임자인

남태설에게 연구내용을 알려주고 수출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도 많은 양의 미광이 실려나가고 있고, 이것은 불과 한두 해 동안 무역국이 허리를 펴게 만든 ‘원천’이었다. 결론은 “한 개 기업소가 적지 않은 리득을 얻는 대신 국가는 백배의 손실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그래서 김유진이 “내 동무를 밍고 떠나가겠네 ……”라고 무겁게 부탁을 한 것인가? 사실 김유진은 자기 할 바를 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무역국을 떠나겠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인계를 하면서 남겨놓았던 미완의 모형배처럼 손경후에게 실상을 밝히지 못하고 떠남기온 일이 꺼림칙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사건이 터져버려, 자기는 결국 그 일에서 도피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일과 직접 관련된 처장 남태설은 손경후의 선배이다. 그는 후배인 상급 손국장에게, ‘책임일군이 되면 모든 문제를 염량 크게 보아야 한다, 나아갈 때 힘껏 나가되 물러설 때도 한껏 물러서야 한다, 지나친 예민성을 좀 낮춰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한 것도 개인의 처세술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수출원천을 찾는 데 공이 컸고, 또 득평광산의 버력을 장악해 외국기업체와 비교적 비싼 값으로 수출계약을 성공시켰던 장본인이다. 그 결과 국의 재정과 경영위기를 넘기고, 광산에는 채굴설비를 제공했다. 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닌가. 그는 또, 공무로 써야 할 자동차로 손경후의 가족에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생활을 살피주는 ‘인정’이 넘쳤다. 이런 점에서도 원칙주의자 손경후와는 상반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적당히’ 서로 좋게 공생하는 타협적 처신은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주의적 인간형과 거리가 먼 것임을 말해주는 구체적 사

건이 바로 ‘미광 수출 사업’이었다. 남태설과 김유진이 추진했던 수의 사업이 정작 국가 차원에 보면 손해라는 것이다. 작품에서 제기한 문제는, 무역단위나 기업소는 이익을 내지만 국가적으로 손실이 되면 ‘실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또 수출품 선정에서 원료가 아닌 가공품으로, 그것도 질 좋은 가공품을 연구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 등이다. 보신주의 관료에 대해 비판하고,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실적주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작품은 무역국 국장의 업적,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 ‘국가에 이익이 되는 실리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애국주의 가치관’이 더 중요함을 다루었다. 전체의 이익에 배반되게 개별 주체들이 당면한 이익과 사적 욕망을 쫓는 현상에 대해 경계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또 하나는 인민경제대학을 거친 손경후처럼, 시대에 맞게 실력을 갖춘 젊은 세대가 지도급으로 세대교체되어야 하는 문제와 ‘국 내부의 기구 정리’라는 실리 관점의 화두는 기존 조직의 개선(개혁)이라는 과제를 던졌다. 이것은 놀고먹는 사람이 많은 관료조직에 대해 인민들의 높은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생계유지의 주역인 장사하는 여성들이 모여 우스개로 ‘달리는 여맹, 앉아 있는 당, 서 있는 사로청’이라고 한다니,¹³⁾ 실리주의가 사실은 국가나 관료에 대한 비판이 되어야 할 문제임을 암시했다.

이 같은 주제는 이전의 작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주민생활의 요구 수준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소설에서 새로운 인물형의 등장은 기존 질서 유지에 우선적으로 무게 중심이 실려 있었다. 변화더라도 ‘예방적 변화’의 시각으로, 변화의 예각을 둔화시켜 반영한다. 이 작

13)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발행, 『오늘의 북한소식』, 제38호, 2006년 9월 20일자.

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것은 ‘생산성’에 맞춰 내부 기구를 정리하겠다는 신임 국장의 ‘관점’에서 엿볼 수 있다. ‘생산성에 맞춘 기구 정리’는 남한 식으로 보면 ‘구조조정’이다. 이런 차원으로 유추할 때, 그 일은 사실상 국장의 권한 밖에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민들의 생활에서 나오는 욕구의 반영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일 수 있다.

작가는 일단 ‘애국주의적 실리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작품 주제를 당 정책에 부합시켰다. 이 점을 김유진과 남태설의 두 사람의 사업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초점을 모았다. 여기서 개인에 대한 비판은 본질의 깃털에 불과하며, 몸통을 이루고 있는 ‘비생산적 관료조직에 대한 비판’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만 주제에 살짝 덧붙인 ‘기구 정리’는 몸통에 수술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과잉 해석은 작품의 내적 구조로 감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간부들이 국가재산을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행위가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2004년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에 의해 생산액의 30%를 지배인에게 기업소 경영자금으로 주어 자유처분하도록 허용했을 때 그 내막을 보면 “리운이 국가에는커녕 개인 사취(私取)에 다 들어간 현실”¹⁴⁾처럼, 제도적으로 부정부패가 쌓이고 있는 현실이 북한 사회의 근본 모순이 되고 있다. 여기에 비춰서 이 작품을 볼 때, 작가가 제도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주민들의 높아진 사회변화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¹⁵⁾

14) 류경원, “조선의 경제관료 극비 인터뷰: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중),” 『립진강』, 제2호(2008.3), 64쪽.

15) 이 작품의 한계를 찾는다면, 그런 문제의식이 손경후라는 중간간부가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관료가 스스로 개혁하기를 바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손경후는 관료로서 체제에 순응하는 가치를 잘 추구하는 인물이다. 그가 본 문제는 무역단위, 기업소는 이익을 내지만, 국가적으로 손실이 되면 ‘실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수출품 선정에서 원료가 아닌 가공품으로, 그것도 질 좋은 가공품을 연구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이 요구됨을 보았다. 김유진과 남태설은 보신주의 또는 개인의 실적과 영예를 생각하는 인물이다. 비판적으로 보면, 개인 영웅주의적 사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형이다. 실제로 남태설은 관용차를 손경후의 가족을 챙겨주는 일에 쓰면서 인맥을 관리한다.

남태설 같은 전형은 인맥으로 사적 영역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생존의 지름길로 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인물이다. 선군정치를 전면으로 내세운 현 시기에 민간의 입장에서 군부는 치외법권지대와 같다. 민간은 군부와 결탁된 인맥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안전부 2국 산하로 들어가면, 무슨 범죄가 있어도 사회안전부에서 취급하지 못하고, 단속에 걸리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로는 법이 국가를 위해 움직이지만 “자기네 관계에 돈이나 빨아 먹을 것이 없으면 법도 취급 안”하는 실정이다.¹⁶⁾

그와 같은 현실상을 “인생의 한여름에”에서 작가는 손경후를 통해 남태설과 같은 관료에 대해 비판하고,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실적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비판과 함께 손경후의 제1의 고민인, 국내의 인사문제가 노동자계급 위에 군림하는 지배계층의 모순을 풀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영생』에서 간부들의 정신상태를 비판한 것은 체제위기를 호도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손경후의 고민은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에 놓여있다. 공적 영역에서 이런 비판적 관료의 욕망을 어

16) 50대 남성 개별면접(2006.6.24). 기타 참조: PS-24, PS-24-1, PS-28-1, PS-33(영문 표시 분류번호는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면담자료임. 이하 동일함. <부표> 참고).

땡게 수용하느냐가 북한의 미래를 판가름할 것이다.

정치 지향형 사적 욕망은 기존의 사회성분의 공고화와 함께 혼란의 틈새를 넓히는 양면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최련의 “축복”(『조선문학』, 2006.4.)은 천리마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현시대의 주민성분 문제와 충성심과 관련한 혁명화를 주제로 한다. 김영심은 전쟁시기에 중앙기관에서 경공업 과장을 했고, 경공업성 부상을 했다. 그는 해방 전 큰 포목상이면서 ‘협화회’ 회원으로 지냈던 백부의 경력문제로 도 지방산업관리국 부국장으로 내려간다. 그는 딸아이를 데려가고, 당시에 군인 신분으로 민족보위성에서 일하던 남편은 큰아들과 함께 평양에 남는다. 두 가족으로 떨어지면서 영심은 남편과 자식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이혼을 결심한다. 곧 해임될지 몰라, ‘마지막 정류소’가 어딘지 자신도 모르는 ‘혁명화’의 대상이 된 때문이다.¹⁷⁾

혁명화는 신분과 관련한 정치적 생명을 좌우한다. 이 명분으로 정치적 숙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 욕망을 혁명적 이념 속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 영심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 도내 공장, 기업소 지배인협의회를 소집하여, 생필품 공업이 부문별 계획에 미달한 실태, 비어 있는 상점들 실태를 정확한 숫자로 파악하고, 가공설비를 새로 만들어 상점에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활기를 띠고 팔리게 했다. 영심은 인민 생활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관리국의 전망목표와 당면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노력하는 영심의 실질적인 목표는 민생고 해결에 있다.

17) 오영재 시인도 한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서 ‘정치적 생명’에 마지막 선고를 받은 처지가 되었다. 그때, 김정일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했다(오영재, “위대한 령도자, 복 받은 시인,” 『조선문학』(1997.2), 55쪽). 이처럼 혁명화는 개인의 신분을 수령주의 체제이념 속에 정치적으로 속박하는 기제가 된다. 각주 7번 참조.

그런데도 추동하는 매개항은 김일성이고 지향점은 혁명화의 완수였다. 혁명화의 고초가 가족에 미치지 않도록 이혼까지 생각해야 하는 모순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되레 당과 수령에 절대적 충성을 바치는 행위 속에는 사적 욕망을 이념형 속으로 은폐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향점이 ‘인민’의 문제로 반전하는 것은 공적 욕망과 사적 욕망의 틈새를 말해 준다.

3대 혁명 붉은기 생취운동,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제2의 천리마대 진군 등 대중운동을 전개하면서 작품에서 흔히 등장하는 영웅들은 생산과 건설의 계획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모범을 보여준다. 사회정치적 통합과 체제유지에 귀결하는 사상이념이 매개되어 영웅적 인물이 만들어지고, 이를 매개해 대중을 교양한다. 이처럼 당은 개인의 사적 욕망까지 통제하고자 한다.¹⁸⁾

하지만 이 점을 사적 영역으로 되비춰보면 그 이면에서 개인의 다른 욕망을 짚어볼 수 있다. 공산주의자로 교양 받는 인민들은 공적 요구와 부합해 보이는 사회정치적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적 욕구가 있다. 실제 노력영웅칭호를 받고자 하거나 입당을 원할 때, 신분 보장과 자존감을 확보하려는 의미를 갖는다.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집안의 한 사람 정도는 입당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람들은 성분이 나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돌격대에 자원하여 기회를 타서 입당을 하고자 한다.¹⁹⁾ 또 군대에서도 입당을 하려고 노력을 지향적으로

18)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이루는 강성대국건설은 주관적 욕망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현시기 인민대중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강성대국건설의 합법칙적 로정을 명시하여 주고 있다”(“사실: 선군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위업의 필승불패의 기치이다.” 『로동신문』, 2003년 3월 21일자, 1면).

19) “최근에 옛날 지주, 자본가 이런 사람들 후손 자식들, 그런 사람들도 군대를

로 한다.²⁰⁾

북한에서 모두다 영웅으로 내세우고자 전개한 대중운동이 사상과 양사업이면서 경제적으로 증산경쟁, 생산경쟁을 추동하는 경제운동이었지만, 1990년대의 경제위기로 인해 집단적 대중운동방식을 지속하기란 불가능하게 되었다.²¹⁾ 그런데도 김상현의 실화문학 “영원한 삶의 노래: 한 정치일군의 수기”(『조선문학』, 2002.11)에 등장하는 엄호삼처럼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결국 집안을 지키려는 자존감의 욕구를 표출한다.²²⁾

한편 합법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부를 축적하는 기회를 삼기도 한다. 북한에서 2006년 하반기에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통행금지령을 선포하고 부득이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위생통과증을 발급해주었다. 장사하는 주민들은 통행을 위해 의사에게 돈을 건네고 위생통과증을 손에 넣는다.²³⁾

이와 같이 북한사회는 정치영역이 과도하게 주민의 삶을 지배하고

안 간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대해서 당 내부적인 방침이 있다. 가정에서 한 사람씩은 입당시켜라. 그렇게 하면 천대하는 게 알리니까. 그런 것을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1명씩은 입당시킨다. …… 배수돌 격대라는 게 있었다. 41명이 몽땅 복잡한 계층 사람이다. ……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게 일했는데 …… 입당한 사람들이 불과 3명인가 될 것이다.”(PS-18-2).

20) “보통은 (입당을) 입대하고 제대하는 8년, 9년 시기가 많고, (나처럼) 6년 정도에 한 것은 빠른 편이다. …… 남보다 어려운 군복무를 했으니깐 좀 일찍이 입당했다고 할 수 있다”(PS-2).

21) 정상돈, “대중운동,”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위음, 『북한의 경제』(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5), 226~234쪽 참조.

22) 노귀남, “사회정치적 생명과 인민의 삶,” 『문학아카데미』, <http://www.munhakac.co.kr>, 2003.6.27 등록.

23) 위생통과증은 장당 만 원에 거래되고, 돈벌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일부 의사는 적극적으로 구매자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발행, 『오늘의 북한소식』, 제55호, 2007년 1월 17일자.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에 반감을 가지고 불평이 표출되고 있다.²⁴⁾ 그런가 하면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타협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난다. 이를테면, 안전부에 있는 법관과 그 부인까지도 친밀관계를 유지하여 장사하는 데 물자를 동원하고, 비법행위에 대한 바람막이를 한다.²⁵⁾ 또는 정기적으로 얼마씩 상납해 아예 검열을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²⁶⁾ 그런 행위들은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고이는 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적 욕망이 부정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모순을 가중시키는 양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2) 기술 전문가형과 사회양극화의 단면

오영재의 장편서사시, 『대동강』(문예출판사, 1985)에 개인적으로 출세를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비혁명적 인물 명훈이 있다. 그는 물길을

24) 간부들이 쉬쉬하면서도 “이대로 사변이 일어나거나 정권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우리 같은 중상층 인물들은 적이 아니라 아마 백성들에게 맞아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군대까지 공급이 부족하여, 사병들의 군영지 이탈이 증가하고, “주지도 않고 요구만 하면 ... 군인들이 죄다 도적놈이 되거나 다 도망가고 말 것”이라고 불평하고, 노골적으로 냉소하는 군인이 생겨나고 있다. (사)좋은 벗들 북한연구소 발행, 『오늘의 북한소식』, 제55호.

25) “일을 하다 보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되었는데, 법관 한 명과 그 부인도 가까웠다. 식사는 자주 같이 하고, 생일 때도 왔다 갔다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법관 들하고 친하면 친할 때뿐이지, 돌아서면 다다’라고 한다”(PS-38).

26) “2005년 당구장을 경영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주었다.” 50대 여성 개별면접 (2006.10.29).

따라 가며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인물로, ‘대동강 처녀’ 리수옥의 애인이다. 수옥은 금성호 제방 공사를 끝내고 남포갑문 건설장으로 내쳐 달려간, 혁명의 긍정 인물이다. 명훈은 수옥의 당당한 모습과 비교하면 ‘철부지’이다. 수옥은 대동강의 언제를 완공하고도 갑문공사장으로 또 간다. 수옥의 영웅적 삶은 계속되는데, 명훈은 다른 생각을 한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은 노동계급이 하는데도 그 위훈은 집단적 의의 속에 포함되며, 설계자, 시공자는 건설사(建設史)에 빛남으로써 개인적으로 의의를 가진 존재가 되는 현실에서 자신이 포함된 노동계급의 삶에 대해 회의한다. 누구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명훈은 수옥을 사랑하면서도 그를 떠나 자기 개발의 길을 가고자 한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는 수옥의 사랑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 보면, 명훈 같은 개성적이고 자기 개발을 원하는 인물들이 당의 품에서 흩어져간다. 전문가·기술자가 되는 길이 생존의 길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²⁷⁾

그렇지만 작품상에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반영되었다. 김홍철의

27) 고등외전, 지금 4년 됐는데, 우리 다닐 때는 3년이였다. 간부담당사인 친구가 그러더라. “너 학교 다닐 때부터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었는데 …… 좋은 재간 가지고 뭐 하러 이렇게 장사만 하고 다니냐? 우리는 무상치료하니, 침이나 좀 떠주고 돈 달라는 말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약을 주겠으니까, 환자를 치료해 주고, 간염이면 간염환자에 맞는 약을 팔아라. …… 그래서 우리 장마당 안에 약장사들은 몽땅 의사들이 연료보장 받고 거기에 나가서 약장사한다. 그런데 나처럼 젊은 나이가 거기에 앉지 못한다. …… (네가) 농촌 작업반에 속해서 그 인민반 안의 몇 집만 신용 있게 병을 잘 고쳐주면 이 사람들이 소개시켜줘서, 약이 실속 있고, 돈 없는 사람은 거저 주고, 농촌사람한테 ‘가을에 결산할 때에 돈을 달라’고 한다.” 친구 말대로 했는데, …… 내가 국가 가격으로 약을 받아 가지고 5배를 붙여먹었다. 그렇게 1년만 했는데 큰 부자가 되었다.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되었다(PS-26-1).

“꽃강냉이: 한 공훈광부의 이야기”(『조선문학』, 2000.9)에서 일제강점 말기에 굶어 죽은 부모를 내세워 현재시점의 기근 상황을 호도하여 표현했다. 북한이 작품 속에 경제난의 실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양해모의 “결석대표”(『조선문학』, 2000.10)는 기술자가 굶어서 병들어 죽고, 산업기반이 붕괴된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보여준다. 이 작품의 주인공 한인국은 발전기를 설계하여 철심자재인 규소강판을 구하는데, 온 나라를 찾아 헤매고서도 빈손으로 돌아왔다. 폐기된 변압기, 용접기들의 작은 철심들을 모아 조립해냈지만, 그는 기업소의 자력갱생을 위해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서는 죽고 말았다. 먹을 것이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고 경제 재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죽음은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 결석 대표가 된 영웅으로 기록되었다.

한인국은 과학기술자로서 임무 수행에 온몸을 바쳤다. 이와 같은 인물은 작품에서는 공적 영역에서 전범으로 구현하는 것이지만, 실제 주민생활에서는 개인의 성취 욕망으로 기울어 나타난다. 기술자로 학문적 성취욕을 갖게 되고, 전문 학자나 과학자의 경우 외국서적을 통해 선진기술에 대한 욕망을 가진다.²⁸⁾

리신현의 『강계정신』(문학예술출판사, 2002)도 1996년 기아가 전국

28) * 나는 전문가이다 보니 잡지를 통해서 다 안다. 1990년 초반부터 노트북이 짙은 낫았지만 아주 편리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컴퓨터는 집에 있었으니까. 노트북을 이제는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큰 것이니까 생각 못하는 것이지만 갖고 싶었다(PS-10-1, PS-10-2).

* 통보사의 사명이 보통 깊이 있는 연구 사업보다는 외국과학기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전국에 봉사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래서 나는 대학을 관련해서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들어가면 매우 유리한 것이다. 외국과학기술자료들을 쉽게 접하니까. 그래서 잘됐다고 볼 수 있다. 공학도로서 제일 먼저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좋은 것이다(PS-40-1).

을 휩쓸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를 배경으로 한다. 이 작품은 시작부터 굶어 죽은 기술자 장두칠이 나온다. 그는 자강도 핵심계급으로, 희천공작기계공장 대들보 기능공이다. 그는 양심을 속이고 싶지 않았기에 현장에서 쓰러지면서도 남들처럼 ‘장사’를 하느라고 자기 일터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죽음에 대해 “양심을 버리지 않고 사회주의를 지킨 보배”로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상은 과학기술자들이 겪는 고난의 행군의 단면을 말해준다. 등장인물 도당 책임비서 태혁, 군당비서 김충모, 1960년대 중소형발전소 돌격대원이었던 림준, 식량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는 여성과학자 성실 등은 전력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력갱생’의 길을 택한 인물들이다. 그 혁명정신이 바로 자력갱생의 전형을 일구는 ‘강계정신’이다. 이 이면에 있는 사적 욕망은 공적 영역의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다.

고난의 행군시작이 시작되면서 1999년까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에 충실한 당원들,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 등, 고지식한 사람은 굶어 죽거나 가정이 파괴되었다. 당원도 아니고 장사를 한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견뎌내고, 그러니 2002년 와서 사람들의 머리가 이제는 당에 충실하고 일만 해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2002년 새 경제를 도입했지만, 2000년 전 고난의 시기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은 다 죽어버리고. 기술자가 있어야 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것 아닌가. 이러니 사람들 머리가 2000년 이후부터는 물질 위주의 이런 생활이 아니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다 바뀌었다 (요약 인용).²⁹⁾

29) PS-2.

이 면담자는 인텔리로서 자존심, 테크노크라트로서의 성취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자기 아버지는 당일군으로 일하다가 1960년대 말 이후에 실시한 토대구성 때문에 행정일꾼으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신에게 긍지가 되고, 또 자신도 출세를 위해 입당 노력을 지향적으로 했다. 그는 계산능력이 빨라서 전연정찰로 비무장지대 안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보통은 입대하여 제대하는 8~9년차에 입당하는데, 그는 6년 만에 입당했다.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좋은 대학에 추천되리라 희망을 가졌는데, 선전과 달리 중앙당 간부자식이 대학을 갔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직장에서 통신으로 공부하기 시작해 건설대학과 통계대학을 다녔다. 두 대학을 졸업할 때 고난의 행군시기에 들어갔는데, 굶어 죽어가는 때에 공부를 한다는 게 보통 의지가 아니었다. 과학자, 기술자, 고급 기능공, 충실한 당원들이 굶어 죽고, 또 일터를 버리고 살길을 찾아 장사하러 나가게 되면서 간부집단에는 기술 역량이 많이 부족했다. 그는 기어코 학업을 마친 끝에 그 빈자리를 차고 승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문가를 지향한 개인의 열정적 노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를 발판으로 한 신분상승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공식영역에서는 이런 사적 욕망이 용인되지 않기에 “결석대표”의 주인공처럼 대중영웅으로 포장될 뿐이다.

자기 신분을 상승시키고 싶었고 다른 동료보다는 더 튀어야겠다, 먼저 입당을 하고 싶고 먼저 강좌장이 되고 싶은 것이다. 그게 이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엘리트들 사이의 강력한 경쟁이다. 대학원 졸업해서 한도에 배치받은 사람이 세 명이 있었다. 처음에 대학에 오면 조교원이다.

누가 빨리 교원이 되느냐, 교원에서 누가 상급교원이 되느냐, 상급교원에서 누가 1급, 2급으로 올라가느냐 경쟁한다. 또 준박사를 누가 먼저 따느냐는 누가 먼저 입당하느냐 문제이고, 이것이 완전히 경쟁이다. 어느 부분이나 관계없이 입당을 위한 경쟁, 그리고 학생 본분이라면 자기의 급수를 인정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다. 한 해에 조교원에서 교원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T.O.가 제한되어 있다.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선 강의안을 잘 만들어서, 학생들 속에서도 굉장히 인정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해서 출판물에 많이 실적을 가져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 실습 기제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결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입당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급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다 (요약 인용).³⁰⁾

이와 같은 개인의 신분상승 욕망은 공적 담론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과학자는 집단주의 세계관, 당성이 투철하여 당이 요구하는 자력갱생에 복무해야 한다. 박원성의 실화문학 “광맥”(『조선문학』, 2001.3) 역시 고난의 원인을 계속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책동으로 간주하면서, 살아남을 길은 오직 ‘자력갱생’이라 말한다.³¹⁾ 자원 없이 자력갱생으로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능력을 영웅적으로 발휘하지 않을 수 없다. 돌격대는 노동력의 극대화를 위해 인간의 영웅지향 욕망을 추동한다면, 과학에 대한 열망은 자원의 극대화를 위한 요청이었다.

박운의 실화소설 “그대의 심장”(『조선문학』, 2006.5)을 보자. 화자(나)

30) PS-10-1.

31) 전인광의 “평양의 눈보라”(『조선문학』, 2000.11)는 미국 사회의 타락상을 철저히 부정했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내부적으로 반제·반미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는 작가이다. 여기에 지적 성취욕인 강한 인물 손 박사를 등장시킨다. 손 박사는 세계 유전학자들이 주목하는 클론기술을 현실화한 기수였는데, 사회와 집단을 위해 큰 공적을 이루고도 또다시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착실히 점령해가는 인물이다. 화자와 대학 동창생으로 과학원 부원장인 손 박사는 40대말에 이미 학계의 선두에 섰고, 대학 때에도 진취성이 강하고 승벽이 세어 자연과학, 철학, 역사, 문학 분야까지 힘을 들였다.

공상의 시절이고 무턱대고 약속하고 내달리던 그 정열의 나날, 그 ‘욕망’의 구간에 나는 그에게 큰 빛을 지고 말았다. 분자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현대의학이 전면방향전환될 것이라는 그의 가설에 현혹되어 과학환상소설을 써내겠다는 터무니없는 약속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스무 해가 지나서야 약속한 원고를 들고 손 박사를 찾아갔다. 손 박사는 한 연구사의 논문을 내놓는다. 고려약학방법을 결합해 생장촉진물질을 발명해 이미 임상 효과를 거둔 것이다. 가설에 입각해 썼던 소설원고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다. 환상소설을 시작점으로 해서 현실 속으로 돌아오는 구성으로 바꾸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노동력 극대화의 요청과 병행해 지적 생산력을 극대화하려는 북한 사회의 욕망을 내보인다. 그것은 공적 담론으로서 추동이면서, 개인의 강한 성취욕을 담고 있다.

오광철의 “높은 요구”(『조선문학』, 2000.11)는 광산마을에서 나서 자라고 공장대학을 나온 채취공업성의 지도원 인학과 고난의 행군 시기에 높은 생산성과를 낸 성실하며 능력 있는 일군인 지배인 장현철을 대비시킨다. 일군의 업적이 성실성으로만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기술가형에 좌우됨을 보여준다.

오광철의 “대학시간”(『조선문학』, 2003.8)은 컴퓨터 관련 연구자들을 등장시킨다. 이것은 한 처녀 과학자의 대학생활을 그리면서 벌어지는 갈등 속에서 최신과학정보에 눈을 떠야 하는 현실적 요구를 담는데, 그 이면은 과학정보 수준이 출세를 말해주는 상승 욕망에 이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정옥의 아버지는 자동화연구소 실장으로 컴퓨터조종체계에서 세계적인 선진 학문수준에 도달해 있다. 반면, 정옥을 가르치는 허주성은 강좌장인데도 10년이 넘은 기술이 된 내용의 교과서를 그대로 쓰고 있다. 정옥은 허주성의 이론에 토대를 둔 자기 논문을 포기하고,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려는 과학단위와 생산단위의 연구사, 기술자들의 연구토론회에 가느냐로 고민한다. 강좌장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진실에 대한 양심의 눈이 미래를 부르고 있다. 은옥은 결국 미래를 선택했다. 새 기술세계에 대한 지적 욕망은 ‘탈정치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욕망은 실제로 개인의 이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실력이 없으면 자리 얻기 어렵다며, 식당을 경영하여 돈을 많이 벌은 여성은 남편이 경제대학 공부를 하도록 뒷바라지를 한다고 했다.³²⁾

도시 학교들에서는 학부모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선생님들의 식량을 대주고 있다. 청진시 중학교 학생들은 매일 돌아가며 순번제로 학생 1인당 흰쌀 1kg를 학교에 바쳐 선생님들의 식량을 대준다. 원산시도

32) 30대 여성 개별면접(2006.9.25).

사정은 마찬가지다. ……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더 쓰기 마련이다. 가정 형편이 좋은 집 아이들에게 학급반장, 분단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기고, 특별히 개인과외를 해주기도 한다. 학급반장이나 분단위원장이 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매달 쌀 15kg 이상과 옷, TV, 선풍기, 목화기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등 선생님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부모의 열성에 따라 선생님들은 일요일이나 휴일에 학생들에게 개인과외를 해주기도 한다. 주로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와 손풍금, 바이올린, 무용과 같은 예능 과목, 수학, 컴퓨터, 자동차 운전, 전기기계수리 등을 가르친다.³³⁾

이 같은 교육열은 신분상승 엘리트 욕망에 닿아 있다. 반면 농촌 학교의 사정은 다르다. 남양노동자구의 경우를 보면, 경제적 여건으로 의무교육의 수준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다. 학교생활에서 교원들도 죽고, 전공과목과 상관없는 과목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정열적으로 교육하지 않는다. 지리 선생님이 물리 수학과 가르치고,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청소년립’이 있어, 나무를 심을 때, 선생님들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 남학생들은 나무를 던져놓고 놀다가 내려오고, 그래도 여학생들은 나무를 복돋아 심는다. 선생님들도 학교 노임과 배급, 부업으로 생활하다 보니 교육에 열성적이지 못하다. 이런 경우 특별히 교육열을 가지고 여건이 되면 진학을 위해 인맥을 찾아 돈을 들여서 시키게 된다.³⁴⁾

이처럼 교육 정도는 북한사회에서 사회양극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주민의 사적 욕망을 더 커지게 만들고 있다.

33)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발행, 『오늘의 북한소식』, 제39호, 2006년 9월 27일자.

34) 20대 여성 개별면접(2006.11.25).

3) 생존 경제형과 시장 지향 양상

북한 사람들에게 ‘강타기’라는 말이 있는데, 북중 국경의 강을 몰래 건너는 일을 일컫는다. 2005년 말경 한 사람은 중국돈 1,500원을 주고 길안내를 받아 중국 연길로 와서 한 달 남짓 돈벌이를 하며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가려면 1,000원이 든다고 했다. 이렇게 적잖은 돈을 들여 중국으로 나오는 까닭은 장사밑천을 만들려고 모험하는 경우가 많다. 식량을 구하려고 대량 탈북하던 때와 다른 상황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국이나 남한 친척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아무 연고 없이 나와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중국에도 600~700원을 못 받는 노동자나 실직자가 수두룩한 형편이니, 강타기를 하여 목적인 돈을 벌기는커녕 비법자로 걸리지만 않아도 다행이다.³⁵⁾

2004년 5월에 탈북한 한 사람은 머리를 좀 써서 살았는데, 소토지에서 강냉이 1톤 정도를 생산하여 다시 뒤집어 불린 이야기를 했다. 그 강냉이로 아내는 집에서 밀주를 빚어 판다. 부산물인 술깁지(술찌꺼기) 나오는 것으로는 돼지를 먹이는데, 술기운에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쌀겨보다 살이 더 잘 오른단다. 퇴근길에 뜯어오는 풀, 농장에서 사온 쌀겨를 보태서 먹인 돼지로 2~3만 원을 번다. 술로 만든 강냉이 1킬로그램은 쌀 1킬로그램 값으로 불어나는데 이 쌀을 다시 판다. 기름을 사서 농사에 재투자한다. 농촌에 기름이 부족하므로 잘 아는 협동농장위원장에게 모내기철에 주어서, 10월 말에 현물로 받아낸다. 봄에 10만 원이 가을이면 2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힘껏 굴려서 2004

35) 마○○(30대 초반), 함북 거주, 개별면접(2006.2.24).

년 봄에 식량 1년분을 여유로 가지고 나머지가 40만 원 정도가 되더라다. 이것을 그는 ‘돼지털오리 세서 만든 돈’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삶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따로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내며 같이 말해준다. 그리고 그가 주변사람들에게 인심을 후하게 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비법2에 걸리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를 통해서 북한에서 어쩔 수 없이 비법으로 사는 보통사람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지만, 그보다 자원을 총동원하여 자력갱생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더 컸다. 그만큼 이념과 정치체제보다 사는 문제 자체가 더 절박한 현실이 되었음을 말해준다.³⁶⁾

이 같은 삶의 모습은 북한사회에서 웬만큼 생활능력이 갖춰진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이며, 사람들의 생존의 욕망을 반영한다. 한 여성은 청진의 재정간부학교를 졸업하고 도시건설 부문에 배치되었는데, ‘사업’을 해서 파견장을 뽑아냈다.³⁷⁾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자기가 배운 재정 감각으로 화폐장사를 하고 이자놀이를 하기 위해서였다.³⁸⁾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장마당생활을 통해 생존의 방식을 터득한다. 농민시장의 확산은 배급체계 와해와 공장가동률의 저하로 직장에서 이탈자가 늘어가고 반면 개인생산이 확대되었음을

36) PS-24, PS-24-1.

37) 노동부 간부에게 고양이 담배 1보루(1만 2,000원)를 주었다.

38) 중국돈 100위안에 3만~3만 4,000원 하는데, 여관을 이용하여 세관가족들이 파는 중국돈을 싸게 사서 차액을 남긴다. 이렇게 2006년 1달 5,000원 정도 수입, 화장품과 옷을 간간히 사 쓴다. 물건은 ‘공업품상점’에서 산다. 화장품은 좋은 것 2,000~3,000원 한다. 생일이 되면, 친구들 2~3명과 1만 원 정도 쓰는 수준에서 식당을 이용하기도 하고, 동무에게 3만 원 꾸겨서, 10% 이자를 받기도 한다. 20대 여성 개별면접(2006.11.25).

뜻한다. 이렇게 가속적으로 체제이탈현상이 만연했다.³⁹⁾ 이와 같은 영향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돈은 이념을 대체하는 주요한 욕망의 매개자가 되었다.

10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스물일곱 살에 돌아왔는데, 실력으로는 대학공부를 할 수 없고, 돈에 대한 의욕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 장사를 했는데, 해산에서 중국 의류 제품을 가져다가 팔면, 1,000원짜리를 1,500~2,000원씩 팔았다. 5년쯤 지나서 1995~1996년 무렵 보니까 간부들이, 사람들이 다 욕망이라는 게 있었다. 북한에는 당일꾼, 보위일꾼, 안전일꾼들이 제일 생활이 좋고 제일 상류층이었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는 간부들이 필요가 없었다. 이전에는 ‘간부가 제일이고 돈이 두 번째다’ 이랬는데, 고난의 행군 지나서부터는 ‘직업보다 이제 돈이 위다’라는 식으로 다 말을 했다. ‘에이, 돈이나 별자’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요약 인용).⁴⁰⁾

이런 행태의 욕망이 수단이 강구되면 경제적 상류층으로 상승하는 길을 열기도 한다. 되거리를 하는 단순 장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중장부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개인상표료를 만들거나 이중장부를 하는 경우를 보자.

화학 하는 과학원의 과학자들도 살아가자니까. 식초, 비옷, 비닐 박막, 머리 물감 등을 만든다. 여기에 허가가 안 되었지만 개인 표 딱지(상

39) 이영훈, “농민시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위임, 『북한의 경제』, 166~186쪽 참조.

40) PS-38.

표)를 붙인다. 만약 물감에 빈 뽕뽕이로 하면 우습지만, 그림 하는 사람 도움으로 도안 상표를 해서 틀에 넣고 인쇄한다. 상표를 붙였으면 좋겠다하는 사람은 돈 가치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그런다(요약 인용).⁴¹⁾

여기서 발전하여 상점이나 서비스업을 사적으로 경영하는 현상이 나타난다.⁴²⁾ 이것은 자본의 축적이 어떤 형태로든 가능했음을 말한다. 기존의 공장·기업소에서 “지배인과 부기장2의 마음이 맞으면 이중장 부도 만들 수 있다”⁴³⁾라는 것은 너물의 재원을 만들고, 사적으로 축재하는 틈새가 됨을 말한다. 이중장부는 개인의 서비스업체 경영에도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사적 영역을 만들어 내는 돈(자본)은 이제 노골적인 생존 욕망이 된다.

돈이란 참 이상한 물건이라, 생존과 함께 돈이 떨어지면 목숨도 끝이다. 돈을 만드는 게 간단치 않다. 남들은 아파트에 10만 달러를 쌓아놓고 사는데, 세대주가 고지식해서 세월을 놓쳤다. 그렇지만 당구장을 해서 제법 벌어들인 적이 있다. 수입은 혼자만 이는 장부와 국가 검열하는 장부를 이중으로 혼자서 관리하여, 건설비를 다 뽑고, 일 년이 못 되어서 투자 대비 60% 이득은 봤다(요약 인용).⁴⁴⁾

41) PS-3.

42) “공장·기업소와는 달리 식당, 상점, 서비스업체, 무역회사는 사유화가 일정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9권 3호(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6.12), 28쪽.

43) 우산공장 지배인 출신 탈북자 나씨(재인용). 양문수, “북한의 경제위기와 노동 환경의 변화,” 양문수 외 지음, 『북한의 노동』(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7), 69쪽.

44) 50대 여성 개별면접(2006.10.26).

그의 경우, 돈이 목숨이라고 인식할 만큼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킨 것은 부자로 사는 주변사람들이다. 이웃의 ‘재포(재일교포) 남자’와 먼저 사업을 하여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는 친구들의 풍족한 생활을 부러워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자신도 사업가로서 감투를 쓰는 꿈을 꾸게 된다.

이렇게 물질적 욕망과 비례해 기업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졌다. 일단 돈만 있으면 권력을 끼기 위해 뇌물이 성행하고, 국가 명의로 된 의화벌이 회사를 꾸린다. 그것이 언젠가는 ‘내 것’이 된다는 온전한 사적 사유를 상상한다.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것에도 돈을 투자하는데 개인재산은 아니다. 이것이 “통일이 되거나 이러면 내 가져도 된다”라는 것이다.⁴⁵⁾

이와 같이 팽창하는 욕망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인 양극화가 만연하여 최소한의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흔하다.

나는 12살에 어머니와 오빠를 잃고 직장밖에 모르는 아버지 손에서 사느라 못해본 일이 없다. 죽도 먹어보고 도토리도 먹어보고 논판의 벼 뿌리로 만든 국수도 먹어보았다. 목숨을 부지하자니 중학교도 못 나오고 생활전선에 나섰다. 산나물 장사와 남의 집 샅일도 해주면서 하루 1,000원이면 1,000원, 강냉이면 강냉이, 감자면 감자, 호박이면 호박, 무엇이든 얻어 와서 아버지 시중을 하고 장사 밑천을 잡아보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 올해에는 바다에 나가 고기 짐도 날라보고 낙지(오징어)도 팔려 보았지만 돈을 모으지는 못했다. 아버지는 고생하는 내가 불쌍하다고 혼자 속 태우면서 가끔 술로 달래며 살고 있다. 나도 새

45) PS-33.

옷을 사 입고 신발을 사 신고 거리도 다녀보고 싶지만, 그런 건 다 꿈일 뿐이다.⁴⁶⁾

어린 여성(23세)으로서,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주고 새 옷에 새 신발을 신겨주는 사람, 아버지를 편히 해줄 사람이 있으면 몸과 마음 다 바쳐 받들고 싶다는 것이 ‘꿈의 전부’라고 말하는데, 이런 소박한 꿈이 점점 어렵게 보인다. 이런 가운데 그럭저럭이라도 살아가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다. 사회보장의 꽃과 같았던 의료 분야조차 병원에서는 주사를 맞히는 일을 하는 것이 고작이고, 의사는 자체적으로 집에서 치료해주는 ‘개인병원’을 한다.⁴⁷⁾

시는 문제 때문에 편법이라도 동원해야 하는 점은 개인만 아니라 각급 단체, 기업소는 말할 것 없고 국가도 마찬가지일 테다. 개인 이익에 주된 관심을 가질 법한 인물들을 돌격대 등 사회동원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법적 교양대상자를 포용하고 있는 현실이 그 점을 말해준다.

박일명의 “눈보라는 후덥다”(『조선문학』, 2003.5)는 ‘백두산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건설’ 사업에 참여한 처녀 돌격대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재건설 사업과 삼지연지구의 살림집 건설 사업⁴⁸⁾이 실제 배경이 되면서, 고이 자란 평양 처녀 은옥도 견뎌내기 어려운 조건 속에 주어진 혁명과업을 기어이 완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백두산이라는 혁명전통의 문제와 돌격대라는 시대적 인간전형을 동시에 보

46)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발행, 『오늘의 북한소식』, 제51호, 2006년 12월 20일자.

47) 20대 여성 개별면접(2006.11.25).

48) 2002년 10월 량강도 삼지연 일대에 2~3층짜리 주택 400여 가구를 건설하고, 1,000여 가구의 주택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중앙기관과 각 도의 돌격대원이 공사를 맡았다.

여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혁명대오에서 낙오하는 인민이 늘어가는 체제 위기 속에서 혁명의 전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현안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은옥은 누구보다 헌신적이다. 그런데도 문제적이며 변화되어야 하는 인물로 그린다.

은옥의 직업과 출신지역은 ‘부기원으로 일하던 평양 처녀’로서, 경제난 속에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투쟁정신과 혁명성으로 단련한 적이 없다는 인물을 설정한 것은 양면성을 띠게 한다. 아바이, 은숙, 사촌오빠 등 여러 사람들이 은옥에게 호의적이며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곤 했다.⁴⁹⁾ 바꿔 말하면 은옥은 혁명적 교양의 대상으로서 부족한 여러 면이 개조되어야 할 인물이다. 은옥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돌격대에 자원하게 된 것은 텔레비전에 나온,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장의 청년돌격대원들 때문이다. 그들의 투쟁모습을 본 다음부터 자신도 한 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따라 배우 기할 주인공을 세우고, 따라 배우는 실천자를 궁극적으로는 혁명적 인간으로 개조시키는 것이 작품의 주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욕망은 ‘사회주의 교양’에 의해 부추기지만, 이면의 사적 욕망은 부기원으로서의 삶에서 나오는 ‘돈’의 가치로 매김이 된다.

부자의 욕망은 변창률의 “영근이식”(『조선문학』, 2004.1)에서 잘 보여준다. 기존의 농업관리체제인 협동경리 속에서도 개인이익을 병행해서 인정하고, 실리추구형 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인공 홍화숙네의 살림살이는 보면, ‘랭동기, 색텔레비존, 록음기, 재봉기’ 없는 게 없다. 돼지, 젓 찌는 염소, 토끼, 닭, 오리, 게사니, 칠면조가 한마당 우글우글하고, 텃밭농사로는 겨울엔 박막을 씌워서 부루(상추), 썩갓,

49) 이와 같이 인맥에 의한 생존 방식은 사적 영역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생존유지 형태이다. PS-38 참조.

배추를 키우고 봄엔 감자를 심었다가 하지 무렵엔 고추를 옮기고 고추가을 하고 나선 마늘을 심는다. 손바닥만 한 땅도 거저 놀리지 않는, 말 그대로 이악쟁이 살림이다. 이런 모습은 극한의 경제적 결핍에서 일반 주민들이 그럴 수 있는 보편적인 생존 욕망의 전형일 테다.

김형수의 “정향꽃”(『조선문학』, 2006.4)에서 쌍둥이 엄마(모판관리 책임자, 애숙)도 비슷하다. 그는 햇내기 모판관리공 봄순에게 모판을 관리하면서 풀도 같이 관리하라고 했는데, 영순이 그걸 뜯어가 버린 것이다. 애숙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봄순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이악쟁이, 드살꾼이다. 봄순이 새싹들을 보고 시가 떠올라 모판관리일지 뒤편에 시를 썼다. 애숙이 이것을 보고, “이 책은 글쓰기 연습장처럼 보이고, 모판귀퉁이에 바람이 새드는 것은 안 보이는가”라고 호통을 친다. 이해해줄 법한 것도 햇내기한테 일일이 따지는 애숙이는 흥화숙 못지않은 이악쟁이다. “모판이 뭐 제 터밭이라구 거기서 토끼풀까지 자래운 옥심인가. 갖가지 짐승을 다 기르다 못해 이제는 뜨락에 벌통이 놓이고 강남에서 물고 올 박씨를 기다리는양 처마 밑에 제비둥지까지 주런이 만들어놓아 사람들로부터 다람쥐네 고간 같은 집이라고 하는 소리가 제 탄에 칭찬처럼만 들리는 게지. 가정을 꾸리자부터 제살림에 착실해진 이악쟁이, 분조에선 드살꾼…….” 이런 모습은 주민들이 대부분 지구책으로 억척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보통 노력의 경제활동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의 욕구는 “영근 이삭”의 결말에 흥화숙이 새 분조에 추천되었듯이, 개혁에 직결되는 초급일군의 변신을 요구한다. 분조관리체의 원칙과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요구에 맞게 분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와 대중이 바라는 일군’을 초급일군으로 세우는 일은 실질적인 생활문제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 욕구는 남의 등에 업혀 사는 사람들의 온상이 되는 집단주의의 맹점을 씻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능력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동경리를 운용해야 함을 말해준다. 북한에서 개혁적 변화는 이런 모습에서 싹트겠지만, 이 또한 분조장이라는 기존 ‘제도’에 수렴시키고 있음은 변화를 조종하는 예방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사적 영역의 확장으로 읽으면, 시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소자본의 축적을 통해 주권적으로 성장할 길을 찾는 소시민적 욕망을 엿볼 수 있다.

3. 욕망과 사회체제상의 영향

북한의 생활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서로 뒤섞여 경계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비사회주의적인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말할 만큼, 기존의 공적 영역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조직생활⁵⁰⁾을 통해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사상투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⁵¹⁾

50) 여맹조직의 활동 강화는 단적인 예이다. PS-27 참조.

51) “집단적으로 술 놀이를 하며 술판, 먹자판을 벌여놓고 해피망측한 춤을 추는 등 우리 식의 고상한 생활풍습을 좀먹는 행동을 하지 말 것. 비(非)사회주의 현상과 투쟁을 강하게 벌여 사회의 건전한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투쟁을 벌일 것. 비법월경자, 무직 건달자, 방랑자, 행불자, 차관장사꾼, 유색금속밀매, 화폐 밀매꾼 등과 법적 투쟁을 강화할 것, 미신행위를 하거나, 불법출판물을 보고, 유포시키거나 사회건전한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현상들과 투쟁을 강하게 벌일 것, …… 청년들이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행위를 하는 현상에 대해서 강하게 법적 투쟁을 벌일 것” 등을 생활총화에서 강조함(데일리NK 뉴스, “북주민 ‘생활총화’ 현장녹음 최초공개,” 2006.7.24.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26047>).

최근에는 일부 주민들이 화교들에게 돈을 주고 자식들에게 중국글, 중국말을 배워달라고 돈을 주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 속에서 훈장과 메달을 팔아먹는 행동을 하고, 또한 조직규율이 약화됨으로써, ‘사람들이 조직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개인을 무서워하는 현상, 그러니깐 호상비판이 하나도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⁵²⁾ 이런 행위는 “당에서 지시를 하면 다 움직여야 한다”지만, 움직이는 사람 따로 있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사람이 태반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개개인의 사적 욕망이 체제 순응과 충돌 가운데 상호 작용하면서, 기존 체제에 균열을 일으킴을 말한다. 공식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① 공식체제의 통치행위에서 나오는 것과 ② 비공식적·개인적 차원의 변화가 공식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눠본다면, 사적 욕망은 양자에 은밀하게 내재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생활에서 사적 욕망, 남녀 사이의 사적 욕망을 비롯해, 사회적 일탈행위로 나타나는 사적 욕망들이 어떤 갈등 양상을 빚어내는지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욕망에는 동기와 매개가 있다. 상승 욕망의 목표 항은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곧장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벌어지는 매개항의 모델과 행위주체 사이에는 ‘갈등 관계’의 거리가 있음에 주목한다. 주체 - 매개 - 목표의 3항을 이루는 삼각형의 구조(▷)에서 갈등 관계에 따라 순응형과 충돌형이 나온다. 개인의 사적 욕망들이 사회체제와 어떻게 순응하고, 무엇 때문에 충돌하고 있는가. ‘갈등’이 심한 경우, 행위주체가 세계와의 관계에서 반대 입장에서 대상과 대결함으로써 생겨난다. 그 충돌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는가

52) 위의 글.

하는 문제는 ‘북한체제의 균열’의 여지를 살펴보는 지표가 된다. 이때 나타나는 체제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며, 특히 체제 저항적인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사회체제와 관계에서 어떤 인간형들이 증가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사회변화 요인을 찾아본다.

1) 갈등적 영향

석남진의 중편소설 『비결』(문학예술출판사, 2002)은 체제 순응과 충돌, 갈등양상을 잘 보여준다. 작품의 발단은 3대혁명 붉은기를 쟁취한 고천식료공장 지배인 리중석이 아들의 장례에 다녀온 후, 자체발전소 건설을 ‘군인들의 정신’으로 하고, 생산과제도 동시에 하려고 결심한 것에서 시작된다. 중석의 아들 철명은 32세로 ‘안변청년발전소’ 건설 결사대의 대장(중위)으로 군관복무 중 사망했다. 아들의 ‘렬사증’은 나라의 에너지문제를 푸는 데 한 몸을 던졌음을 뜻한다. 그래서 중석은 공장의 에너지 문제를 공장자체발전소 건설로 해결하려고 한다.

지배인은 세 마리, 네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잡도리이다. 자체 식료생산과제는 원료기지가 돌아가야 한다. 발전소 건설도 해야 하고, 거기에는 사회동원과제도 떨어진다. 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원도 자재도 기술도 모두 자체로 해결한다. 거기에 배신과 갈등이 벌어진다.

사람문제는 사랑문제로 얽힌다. 전기기사 구병진은 공장자체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변압기를 제작 중이다. 대안중기계공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안 되어 자체 해결에 나선 것인데, 그의 애인이 변심을 하는 일이 생겼으니, 일이 손에 잡힐까. 그는 군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식의 처조카인 실험공 원정애와 사랑을 약속했는데, 1년 뒤

애인이 외화벌이 기관으로 직업을 옮기더니 딴 남자와 약혼식을 해버렸다. 병진이 배반을 당한 것이다.

발전소 돌격대 청년들 사이에도 문제가 많다. 철명의 애인인 인숙은 철명이 죽었다고 말해줘도 공민증에 그를 남편으로 올려달라고 중석에게 애원했다. 또, 철수는 자유주의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장사를 한다고) 작업에 지장을 주었다.

이렇게 그들 속에 사랑과 생활의 욕망이 뒤엎힌다. 병진은 변심한 애인 정애와 그 약혼자에게 통쾌한 복수를 생각한다. “자기가 도달하려는 값 높은 이상의 승리로 그네들이 유혹된 저속한 세계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 또 병진은 정애가 직장을 옮긴 즈음에 최신유행의 양복,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화려해지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 ‘저속한 세계’에 뛰어들어 복수하고 싶기도 했다. “나도 딴벌이를 나서면 지금처럼 허술하게 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렇게 해볼까, 젠장…….”

하지만, 중석은 돈과 사람을 저울질하는 것 이상 더러운 것은 없다고 병진을 돌려 세운다. 그가 없으면 발전소 건설에 지장을 가져오니, 그것도 욕망이다. 만식의 처조카인 정애 때문이니, 형님으로 불리왔던 만식에게 처신을 잘못한다고 한바탕 들이대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병진이 이겨내리라 믿는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고, 여러 시련을 이기고 있다고.

게다가 또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해 공장에 ‘사회동원과제’가 떨어진 다. 중석은 식료공장에 배당된 운천강제방공사 작업구간을 보고 한숨이 나온다. 만식은 그 공사의 행정 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중석에게 작업구간을 조절해줄 수 있다고 나선다. 이런 경우,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비공식적인 관계를 만들고, 고이거나, 편법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증석은 어떤 편법도 거부한다. 이처럼 그의 욕망들은 건담으로 승화한다.

그러나 능력에 한계가 있다. 기사장 태렬은 자체 발전소 건설에 부족한 자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수완 있는 사람’을 하나 공장에 받자고 제안한다. 군 외화별이사업소에 있던 사람으로 수완도 좋고, 주머니에 돈도 두둑하다는 것이다. 그가 500크바 변압기를 자체로 만드는 것보다 1,000크바 변압기를 구입하겠단다. 자력갱생 한다지만, 아무래도 전문가, 전문공장의 솜씨를 따르지 못한다며 사나이는 자신 있게 일가견을 피력했다. 그 대신 공장의 생산물을 조금만 떼어달란다. 공장의 술맛이 좋아, 공장을 위해 외화별이도 좀 하며, 술을 외화상점에 넘길 구멍수가 있고, 상표를 만들어 붙여 선전을 하면 외화가 나온다는 것이다. 사나이는 자기가 어느 기관의 후방사업을 했는데 그곳 학교의 교장을 녹음기 같은 물건으로 삶아 바닷가에 흔한 조개, 물고기, 미역 등으로 큰 이득을 보았다고 자랑한다.⁵³⁾ 증석은 그를 허풍스러운 험잡꾼쯤으로 본다.

이처럼 생활과 욕망은 원칙, 후회, 타협, 자존심 등의 문제로 뒤얽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의 욕망은 “빨리 텃밭이 있는 두 칸짜리 단층 살림집에서 단란한 가정생활을 꾸리는 수준”을 바라는, 식료공장에 동원된 운전사의 꿈처럼 소박하기만 하다.

위와 같은 양상은 북한 사회내부의 일상적 갈등일 텐데, 욕망의 매개적 인물이 되는 군 외화별이사업소의 수완가는 ‘험잡꾼’으로 그려

53) 이런 현상은 실제로 비밀비재하다. 외화별이한다는 것이 간부들 주머니나 채워주는 것이다. 학교 교장이면 소장인데, …… 그 사람들에 한해서 외화별이해서 벌어서 윗대가리를 먹이는 그 돈이나 버는 것이다. 순 비리 현상이다. 50대 남성 개별면접(2006.6.24).

짐으로써, 그 밑바닥에는 외부세계와 극단적 갈등을 깔고 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외화벌이는 사적 욕망의 중요한 매개자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만큼 갈등의 폭은 더 커진다.

평안북도 정주 교화소(단련대) 수감자 중 거의 90%가 모두 비법도장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다. 국경을 몰래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단련대에서 무사히 수형생활을 마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애초에 먹고 살기 힘들어 탈북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간다 해서 생계유지에 별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 번 넘어가 살아봤기 때문에 더더욱 북한에 남아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재탈북을 시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화소 안에 있으면서 서로가 외부 정보를 몰래 주고받다가 출소하면 기회를 틈타 다시 국경을 넘는다. 이때 뜻이 맞는 동료들과 같이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주 교화소에서도 감옥에서 한두 사람을 더 포섭해 재탈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화소가 탈북자 양성소’라는 말이 돌고 있다. 전거리, 개천, 사리원, 천내, 강동 등의 교화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⁵⁴⁾

손전화기(핸드폰) 통제가 심해지면서 한 번 적발되면 추방형, 두 번 걸리면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있다. 이밖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의 CD를 보면 무조건 추방, 심한 경우 본인에게는 징역형울, 가족은 추방을 한다. 이에 CD뿐 아니라 CD 녹화기도 시장이나 상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되었다. 이미 CD 녹화기를 보유한 경우 당국에 등록해야

54)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발행, 『오늘의 북한소식』, 제52호, 2006년 12월 27일자.

하며, 볼 수 있는 목록도 북한 작품에 한정되었다. 다만 중국 모택동 시대의 전쟁 관련 영화나 구소련 시대에 제작된 일부 영화는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손전화기는 물론 외부의 소식이 들어올 수 있는 일체의 외국영화, 잡지, 텔레비전 방송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⁵⁵⁾

이 같은 사실들은 내부세계와 외부세계의 극단적 갈등양상을 적나라하게 말해 준다. 이를테면, 공식 방문비자로 나와서 중국에서 지낼 동안은 자본주의 물에 흠뻑 젖어 지내게 된다. 감시체계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위성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남한 상황을 자유롭게 접하고, 외부세계에 대해 알 만큼 알게 된다.⁵⁶⁾ 한 여성은 그러다가 귀국해야 할 즈음에는 스트레스를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사적 욕망은 외부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증폭되고 있고, 이는 내부와의 극심한 갈등요인이 됨으로써 사회체제 변동의 틈을 만들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 이런 행위를 비법으로 몰고 있지만, 주민들의 새로운 욕망의 흐름에 중간간부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 또 북한의 불안 또는 위협이 외부에 있다고 보는 견해를 뒷받침하듯, 북한 내부에 정보시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⁵⁷⁾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사적 욕망의 갈등양상은 외부 자극의 요소가 무엇보다 큼을 확인시켜준다.

55)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발행, 『오늘의 북한소식』, 제56호, 2007년 1월 24일자.

56) 나는 세상물정을 알아도 많이 아는 축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내가 장사하러 전국 각지를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그리고 중국에 몇 번 왔다 갔고. 50대 남성 개별면접(2006.6.24).

57) 골동장사, 마약 등에 대해 국내외적 감시와 통제 속에 그 출로의 하나가 해외가 수요하는 정보시장이다. 한○○ 개별면접(2008.2.24).

2) 화해적 영향

개인이 사회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권력에 순응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머니도 당원인 경우 공부를 해야 해서 시끄럽고 조직생활이 힘들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입당 안 하면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하고, 축에 끼지 못한다. 간부 기준으로 입당과 대학졸업은 기본이고, 돈이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안 된다. 큰 회사 사장도 검찰기관에서 검열 나오면 째째 매고, 검열에서 걸리면 해임되므로 검찰이 가장 무섭다.⁵⁸⁾

기존 질서의 와해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이 폭력적으로 작동할 공간을 만든다.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중국 단둥에 합법적으로 방문한 한 사람의 생활상 단면을 통해 살펴보자. 북중 국경을 두고 밀수, 탈북 등 탈법적·비법적인 욕망이 충돌하는 양상과 다르게, 합법적으로 방문한 중국은 사적 욕망을 ‘공공연하게’ 확대재생산하는 공간이 된다. 한국 위성방송이 나오고 있는 숙소의 방안에는 차떼기 수입이 가능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욕망이 가득했다. 대형 마대에 옷가지 등이 들어 있는 것이 예닐곱, 가스난로가 몇 개 박스 포장되어 있고, 크고 작은 박스들이 마대 자루들 분량만큼 되어 보였다. 백화점을 돌며 부탁받은 생활의료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상품형태를 복사한 종이를 보여주었다. 부탁받은 것은 바로 그 물건이어야 하는데, 그 가게에는 없다. 비타민제를 파는 곳으로 갔다. 얼굴에 잡지 같은 것이 나는

58) 20대 여성 개별면접(2006.11.25).

것을 낮게 한다고 8개월치를 산다. 토코페롤을 하루 1알씩 먹는데, 250알짜리, 미제 비타민씨를 합해 200위안을 주고 샀다. 그의 지갑에는 몇 천 위안이 들어 있다. 다음으로 보석가게가 많은 백화점이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귀걸이를 샀다. 이제는 백금이 유행이며, 살결이 희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노라고 했다. 요란스럽게 알리지 않도록 단순한 모양을 원했다. ‘서브다이아’가 장식된 것은 처음에는 보기가 좋지만, 닳지 않으면 더러워져서 싫다고 했다. 그런데 그런 보석이 박힌 두 겹 원 모양 귀걸이를 골랐다가, 그게 백금인 줄 알았다가 잘못 보았다며 선택하지 않았다. 여러 개 하트모양으로 이어 원을 이룬 14K 귀걸이를 170위안에 샀다. 이런 지출을 대수롭잖게 생각한다. 그러고는 400원에 샀다는 24금 귀걸이를 ‘수매’하지 않느냐고 확인하여 되팔았다. 싫증이 나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란다. 가방을 둘러보았다. 가죽이 부드러우면서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는 것을 찾았다. 마음에 드는 형이지만 색상이 맞지 않다고 사지 않았다. 다른 백화점으로 갔다. 아이들 선물을 일일이 사고, 자기가 애용하던 순금귀걸이는 싫증이 난다며 또 다른 순금 귀걸이를 279원에 샀다. 평소에 친구들이랑 먹는 것을 골라 먹기 위해 돌아다니지만,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800위안짜리 오리털 코트를 샀다.⁵⁹⁾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돈이 없을까 가장 두려워했다. 합법적이면서도 경우에 따라 비법으로 몰려 몰수될 수 있는 ‘위기 속의 욕망’을 누리고 있는 까닭이다. 안정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것은 불안정한 사회 속에 있다. 즉, 제도적 법적 관계 속에 이뤄진 부가 아니라는 뜻이며, 한편으로 그런

59) 40대 여성 개별면접(2006.11.23).

<표 1> 칠골민속관 영업허가증

영업허가증

기 업 명 칭: 평양락원합작회사(칠골민속관)
당 사 자: 우리측 — 내각사무국 재정경리부
 상대측 — 연길락원식품유한공사
기업 소재지: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3동
업 종: 민족음식전문식당. 떡, 참기름 판매(카운다)
 청량음료, 식료 및 기념품 매대 포함
등 록 자 본: 336,200€
국 가 승 인: 제244호 주체 94(2005)년 2월 7일
존 속 기 간: 주체 109(2020)년 11월 30일 (15년간)
유 효 기 간: 주체 96(2007)년 3월 30일

위와 같이 영업을 허가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협조관리국

주체 95(2006)년 8월 29일

폭력적 권력과 타협하여 끊임없이 뇌물을 고이며 살아가야 한다.

북중 변경은 비법 월경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이런 상황의 주민의 경우 사적 욕망은 갈등으로 표출되지만, 합작·합영을 통한 합법적 대외무역은 외부세계와 화해를 지향한다.

평양의 칠골민속관 식당을 <표 1>대로 합법적인 계약 절차를 거

쳐 개설한 오스트레일리아 국적 한인 사장의 경우를 살펴보자.⁶⁰⁾

그는 평양에 친척을 두고 있는 해외동포이다. 평양에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 이익은 없다. 애초에 이윤을 바라지 않았다고 한다. 조카들 중 한 사람을 지배인으로 세워, 그 친척들이 합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여기는 아파트 살림집이 밀집한 지역이라 편의점 역할을 하고, 식당은 결혼식 연회장으로 이용된다. 주민편의 공간이 제공된 셈이다.

식당의 영업허가는 재계약한 것인데, 계약 상대가 바뀌었지만 이전에 투자한 자본금을 손실로 상계하지 않고 인정하여 33만 6,200유로 그대로 재등록해주었다고 했다. 형식적이지만 손실을 보전해주었던 계약 행태는 외부세계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외부세계와의 화해도 추구하면서 내부세계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 점은 합리적 거래를 마련해나가고자 하는 단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욕망과 가치관 변화의 영향

김창수의 “차번호 ‘만- 하나’”(『조선문학』, 2000.10~11호)는 한 지점의 노반공사를 하는 돌격대 청년들의 모습과 함께 사랑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중장비논커녕 마대를 기워서 등짐을 지면서도,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투쟁정신으로 일했다. 해선은 대대장도 결원인 대대의 실질적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받아안았다. 만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좌우명을 가진 그에게 공사지점, 대대 이름까지

60) 식당 여사장 개별면접(2006.11.26).

‘만-하나’로 불리는 가운데, 성격과 사건이 겹치며 이야기가 엮인다.

‘만-하나’는 혁명정신을 상징하면서 갈등의 요소이기도 하다. 옛날 애인이었던 준섭이 평양시사단에서 일하다가 수리소대로 들어오면서 두 사람이 재회하면서 사건은 발전한다. 혜선과 준섭은 ‘만에 하나’ 때문에 만나고, 그 때문에 또 헤어졌던 사이였다. 작년 살림집 건설에 쓸 골재생산전투를 할 때, 갑자기 정전으로 골재세척기가 멎었다. 준섭이 변전소로 달려갔다. 어두워 남자인 줄 알았던 혜선이 왕변압기 속에 빠진 나트 하나 건지는 일로 애쓰고 있었다. 만에 하나, 정전이 된 사이에 이기던 몰탈이나 뿜던 쇳물이 잘못될까봐 빨리 해결하기 위해, 혜선은 기름 속에 몸을 담가 발가락으로 나트를 건져 올릴 꿍꿍이를 하고 있었다. 준섭은 그 자리에서 당장 대신 기름목욕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단숨에 이해와 믿음의 길동무를 만났으며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해가 생겼다. 자강도 출신인 준섭은 평양 처녀를 반려로 삼아 남다르게 일해보고자 했었다. ‘수도(首都)의 맑은 정신과 문화로 교양된 처녀’인 혜선을 만났으니…… 준섭은 자신이 일부 청년들이 어려워진 생활 때문에 수도 처녀를 택하려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혜선은 자강도 출신이었다. 혜선은 그가 평양 처녀의 도움을 받아 한 자리 차지하려 했다며 떠나버렸다. 만에 하나의 티끌도 용납할 수 없는 혜선으로서는 그건 실수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버린 것이었다. 준섭은 혜선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고, 사랑을 잃은 대신 새 생활신조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였다. 혜선은 그런 준섭의 변신을 몰랐다. 준섭은 헌 차를 말짱하게 고쳐 ‘만-하나’라는 차번호를 달아 대대에 기증하게 하고, 공사가 ‘만년대계’가 되도록 완벽한 기초공사와 자재공급을 위해 노력했다.

이 작품을 스토리로만 읽으면 별다른 ‘변화’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만에 하나’라는 완벽한 긍정적 인물전형은 북한문학에서 무수히 그려온 영웅들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긍정적 인물을 부정함으로써 또 다른 긍정적 전형을 찾아기는 혜선과 긍정적으로 발전한 입체적 인물인 준섭 사이에 선명한 갈등구조를 엮어낸 점이다. 김창수는 갈등구조를 통해 혜선을 더욱 ‘고상한 인물’로 반전시킴과 동시에, 그 이면의 사랑의 감정을 팽팽한 내면 갈등 심리로써 잡아낸다.

혜선은 달아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발이 얼어붙은 듯 통 움직여낼 수가 없었다.

밤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그러나 그는 먹물을 풀어놓은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준섭이가 지금 박달나무들에 송탄유를 알심 있게 칠해가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으며 과일향기마냥 은은히 풍겨오는 그의 만년대계정신도 너무도 잘 감수할 수 있었다.

혜선이 준섭을 재인식하는 이 장면에서 보여주듯, 내면적 갈등을 심도 있게 파고뚫은 개성의 비중을 높여 가는 전형 창조라 할 만하다. 따라서 작가가 만에 하나의 정신을 청년전위들의 순결한 양심이며 충실성·수령결사옹위의 실제적 힘이라는 ‘종자’로 구현하여 썼더라도, 갈등의 구조는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게 한다.

정영종의 “후사경”(『조선문학』, 2001.1)도 김창수의 “차번호 ‘만- 하나’”를 연상시킨다. 두 작품은 연애심리를 그리면서, 역척같은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분발시켜 돌격대로 끌어들이는 기본 소재가 비슷하다. 1인칭시점의 사랑이야기가 흔하지 않은데, “후사경”은 첫

장면부터 “사랑은 아픔이기도 하다고들 한다. 과연 그럴는지…… 명백한 것은 나의 경우 그 사랑이 아픔으로부터 시작된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이다”라는 말로 호기심을 당긴다.

주인공 인수의 조국에는 사회주의적 미덕이 충만한 여성한테서 느낀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 주제가 연애감정보다 소미천발전소 건설과 돌격대원의 헌신성에 있다고 하겠지만, 이 작품의 중요한 모티프는 인수를 변화시킨 ‘꼭새’에 있다. 꼭새는 몸집이 너무 커서 땅에서 날지 못해 벼랑에만 둥지를 틀고 사는데, 어쩌다 땅에 내려왔기라도 하면 한 치 한 치 벼랑꼭대기에 툭아올라 날개를 펼치는 새이다. 태희는 이 새에다 도저히 전진할 수 없는 파탄의 현실에서도 한 발 한 발 운몸으로 가는 ‘자력갱생’의 길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던 여성이다. 인수의 꼭새는 이성에 대한 남다른 첫 감정을 환기시켜준 것을 넘어 한 생의 주춧돌로 되는 사랑과 조국애를 말한다. 하지만 인수에게 꼭새는 태희의 현현이다. 그 점은 인수가 영채를 처음 보았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와 착각하고 있음을 영채가 단번에 눈치 챈던 바에서 말하고 있었다. 또 대단원에서 태희의 질문이었던 “꼭새가 어떻게 나는지 아오?”라는 말을 인수가 다시 영채에게 정색하며 물었다. 그것은 의미를 모르는 태희보다 독자에게 던진 상징이라 할 것이다.

이 소설은 돌격대원의 ‘영웅적인 모습’과 조국애를 주제로 한다. 인수가 말하는 조국애의 강조는 경제파탄으로 인해 불가능해진 건설사업보다 ‘목숨대고 벌이는 사상의 대결장’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짙다. 하지만 ‘무거워도 힘겹지 않은 고난의 짐’에서 사랑의 의미를 앞으로 끌어냄으로써 정치적 외연의 굴레를 벗고 스스로 지는 사랑의 아픔이 담긴 ‘변화’를 감지하게 한다.

송출언의 “뜨거운 눈”(『조선문학』, 2004.10)은 세 사람을 차례로 주인

공으로 삼아, 입체적 관점이 가능하도록 각기 1인칭시점을 이용한다. 첫째, 전문학교 졸업생으로 피복 공장 회계원인 은경이 화자가 된 시점이다. 내가 보는 배우자상은 ‘성실성과 순박성만으로 남자의 장점을 대변할 수 없고, 보다 과감하고 열정적이며 즐기찬 것이 더 좋다’는 쪽이다. 사나이다운 기품과 높은 지성을 가진 남자에 끌려 한 생을 살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그(김진철)는 소심하고, 춤을 추지 못하면서도 밖에서 구경만 하고 배울 생각은 없으며, 처녀에게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은 못한다. 그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나는 “할 일도 많고 아직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포로가 되어 구속받고 싶지 않다”라며 거절했다. 그런데 나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한 건설에 탄원해 갔는데, 그곳의 지휘관인 중대장이 바로 김진철이었다.

둘째, 진철의 시점이다. 실패한 첫사랑 은경을 만난 나(진철)는 충격을 받는다. 나는 그에게 왜 반했는지 회상한다. 아름다운 용모? 발랄하고 대바른 성품? 지금은 그가 ‘백두산성지건설’에 와서 달라지기는 했지만, 평범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처녀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처녀를 날마다 봐야 하는 것이 괴롭다.

셋째, 관찰자 봉식의 시점에서 ‘나’는 은경과 중대장이 과거에 알고 있던 사이임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사랑하는지 몰랐다. “평범한 인간들이 여기 백두산에서 투사로, 영웅으로 성장했다.” 그것은 ‘백두산식 사랑’의 중매자 역할을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세 사람의 ‘나’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작가는 여기서 개인의 욕망과 개성적 가치를 집단과 사실상 대등하게 놓으려 한다.

이와 같은 작품 속에서 사랑을 읽으면서, 내면갈등과 개성에 대한

비중, 시점의 변화 등은 집단주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김혜성의 “열쇠”(『조선문학』, 2004.4)는 비사회주의 검열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현실과 사회주의 재교양 문제를 짐작하게 하는 작품이다. ‘나’의 남편인 충국이 아버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모두가 신념을 지키고 조국을 지킬 때’ 자신조차 지키지 못한 ‘불량배’였다. 그는 ‘불도젤’의 기름을 훔쳐서 술과 바꾸는가 하면, 술친구의 텃밭을 일궈주다가 ‘불도젤’을 벼랑에 굴러 떨어지게 해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자기밖에 모르고, 출근하기 싫으면 술과 놀음으로 시간을 보냈던 그가 ‘법적 교양’을 받고 돌아와서는 이미 헤어져 살고 있는 아내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에서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말이 나는데, 이것은 법적 교양 대상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회 재편입이 현실적으로 더 요구되는 문 제임을 보여준다.⁶¹⁾

하지만 이 작품을 뒤집어 읽으면 여성들의 경제력과 의식성장이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도전을 비롯해 사회변화의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경제난 이후 비공식 경제활동인 장마당 장사를 여성이 주도했고, 역설적이게 여성의 새로운 물적 토대를 마련할 수

61) 일상 속에 비법행위는 만연한 일인데, 비법적인 장사의 일례로 북한에서는 CD-R이라 하는 한국영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동지들은 얼마 안 사고, 주로 대대장, 정치지도원 이런 사람들이 샀다(No. PS-7, 2006.1.23). 고난의 행군 때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힘으로 벌어, 디젤유 여섯 드럼 값 3만 6,000원(아파트 3채를 살 수 있는 돈)을 투자했다. 1996년에 디젤유 사건이 나서 기름을 가져간 사람에게 한 푼도 못 받게 되었다. 억울하여 초급 당비서에게 부탁했지만 서로 좋게 해결해야 한다고 돈을 메이고 말았다(PS-26-1). 이런 사례처럼 비법행위가 관료와 연루된 일종의 생존사슬이 되어 서로 눈감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있었다.⁶²⁾ 이런 상황에서 파생되는 여성의 욕망을 “열쇠”에서처럼 ‘순종의 미덕’으로 다시 덮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은 가장 일반적인 사적 욕망일 수 있는데, 위 작품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징후는 가치관의 변화에 있다. 사랑의 내면적 요구와 개성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음은 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이 가운데 특히 여성의 자존적 욕망이 물질 토대를 만들고 있는 현실, 생존을 위해 가정경제를 책임지다시피 하는 사회현실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여성의 힘은 기존의 가치관과 크게 충돌하는 지점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4) 욕망전형의 변화 의미

갈등은 바깥세계와의 관계에서 행위주체가 반대 입장에서 대상과 대립함으로써 커진다. 바깥은 자본주의 현상과 접촉을 의미한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시장화의 효과는 ‘돈’이 사회주의 이념을 대체하고, 따라서 쉽게 자본주의인간형에 물들게 되어 있다. 공적 영역의 집단주의 가치관과 배치되는 사적 욕망이 그에 따라 늘어갈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점차 자본주의 사회의 중산층을 닮고 싶은 욕망이 커진다.

62) 엄마도 내게 ‘이 다음에 시집가면 나한테서 살겠다’는 이런 기대가 많았다. 오빠가 있었는데도 나한테 많이 의지하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차마 나도 대학에 가고 싶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집안을 살리자면 …… 입당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고모네가 아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살아서 도움을 받으려 갔는데, “너네 집이 망했다”라고 비웃었다. 내가 17살 때부터 결심 품은 게 돈을 진짜 많이 벌어가지고 남보다 더 잘 살겠다는 것이었다. 졸업하자마자 내가 장사 다녔는데, 내 욕망뿐이다. 진짜 열심히 일주일에 두 번씩 차 타고 다녔다(PS-1).

외국방문을 경험한 상류층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가치관의 변화에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단속과 규제로 나오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존 사상이념을 대체하는 가치를 찾게 된다.

북한 당국은 전국적으로 지난 해 10월 10일부터 대대적 단속에 들어갔다. …… 단속이 심해지자 주민들은 “어느 집에서든 사돈에 팔촌까지는 꼭 감방살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단속 대상에서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빚을 지고 국가 재산을 탕진한 자들, 외국에 친척이 있어 불법으로 연계를 가지거나 접촉한 자들, 사회에 불만이 있고 무리지어 술 마시고 싸움질하는 자들, 종교를 퍼뜨리고 미신을 전파하는 자들, 전문적으로 탈북을 도와주고 돈벌이 하는 자들, 가족에 탈북자가 있어 연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손전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자들, 국내 비밀을 외국에 팔아먹는 자들, 외국과의 연계를 대주는 자들, 강도질과 절도질하는 자들, 탈북을 시도하는 자들, 장기적으로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체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자들’ 등이다.⁶³⁾

단속 대상의 대부분이 외부세계와의 불법적 연계를 문제로 본다. 내부세계의 사적 욕망에 내포된 비법적인 내용이 주로 외부세계의 가치관과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내부와 외부의 갈등이 크고, 사회불안 요인이 증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신행위는 일종의 안전망을 찾는 새로운 욕구가 된다.

사회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처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점치는 행위는 결혼, 이혼 문제의 인생 대사는 말할 것 없고, 잃어버린 물건을

63)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발행, 『오늘의 북한소식』, 제57호, 2007년 1월 31일자.

찾거나 운세에 맞는 날짜를 받는 따위의 세세한 일상사까지 신력(神力)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인다.

주민들뿐 아니라 간부층에도 미신이 확산되어, 심지어 단속해야 하는 법 기관, 군부, 당 기관 사람들조차 생활이 어렵거나 병이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관상쟁이, 점쟁이를 찾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 주민들은 사회 불안, 미래 불안에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미신이 근절되지 않고, 되레 이런 현상과 편승하여 돈벌이를 하는 간부들도 나왔다. 보위부와 보안서 보안원들은 자신들만 취급하는 주민들의 동향과 배경을 기록한 개인 신상 문건을 이용해 점쟁이와 동업자가 된다. 이들은 신상문제로 점칠 것을 유도하고 큰돈을 받아낸다(요약 인용).⁶⁴⁾

일상을 신의 힘에 의존하는 일은 생존의 1단계 안전의 욕구를 채우는 의미를 가지면서, 개인의 생존행위의 동인(動因)에 성격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한다.

신앙이 부재한 상황이니까 …… 획일적인 주체사상이라든지 혁명성 이런 것은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지 않는가? 생활의 여러 경우에 대처하는 좌우명, 가르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소설, 명언집 그런 쪽에서 찾아야 한다. …… 서로 돌려봐서 보풀이 난 명언집에서 필요한 조항들을 내 수첩에 옮겨 적는다. 삶의 지혜를 찾는 것이다. …… 명언에도 없는 그런 경우에 부닥치면, 미신을 찾는 거다.⁶⁵⁾

64)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발행, 『오늘의 북한소식』, 제52호, 2006년 12월 27일자.
65) PS-10-2.

북한사람들은 명언을 좋아한다는 그의 말은 기존의 사상이념에서 내면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변화를 반영한다. 돈이 목숨과 같다고 알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파산의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의 가치관에 사실상 반사회주의적 욕망의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이것은 집단주의 가치관에 따라 이뤄지던 배급제, 무상교육, 무상치료와 같은 사회보장이 거의 통하지 않고, 사회불안에 개인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여기서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등 생존의 초보적 욕구가 사회주의적 안정망이 무너짐으로써 대응하는 개인의 행동 동인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북한사회 사회변화의 성격을 평가하는 새로운 측면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의 결과로 자본주의 시장화의 요소가 짝트고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 미신이나 행동의 좌우명을 가르쳐 주는 명언집에 대한 쏠림은 늘어난 사적 욕망의 성격을 반영한다. 즉, 욕망의 성격은 매슬로가 말한 성장의 욕구보다 결핍욕구에 강하게 집착하고, 욕망의 단계로 말하면 낮은 단계의 욕구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욕망을 추동하는 매개자가 사상이념, 사회적 영웅에서 돈이 제일인 것으로 변화한 의미는 자본주의 시장으로 전진한 것으로 단순 평가하기 어렵다. 문학작품 속에서는 외화벌이일꾼을 거의 모두 부정적으로 그렸다. 그런데 주민생활에서는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극단적 간극은 그만큼 불안한 사회에 대한 안전 욕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현실적으로 체제권력에 순응하면서 광범위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만들고 있음으로써, 쉽게 체제붕괴가 될 수 없는 내구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⁶⁶⁾

4. 결론

앞에서 북한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미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적(私的) 욕망을 살펴보았다.

욕망을 표출함에 있어 북한의 정치 및 사회 현실과 무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첫째, 정치 지향형에서는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타협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그만큼 부정부패가 많아진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주민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불만이 많았다. 즉, 타협과 갈등 양상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작가는 작품 이면에 비판의식을 표출하는 인물전형을 그려냄으로써, 주민들 사이에 체제 비판적 의식이 싹트고 있는 단면을 반영했다.

둘째, 기술 전문가형은 전문영역을 통한 신분상승 욕구를 강하게 표출했다. 간부가 되려면 대학졸업은 필수적이다. 비공식적인 사적 시장까지 만들고 있는 교육열은 극단적 사회양극화를 뚫고 신분상승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작품에서는 그런 욕망을 표출할 수 없다. 과학자는 집단주의 세계관, 당성이 투철해야 하고, 당이 요구하는 자력갱생에 복무해야 한다.

셋째, 돈이 떨어지면 목숨도 끝이라고 할 만큼, 생존 경제형은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때 생존의 의미는 목숨을 부지할 경

66) 북한은 법이란 보장해주려고 생긴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 생긴 법이지, 말로는 그렇지만 자기네 관계에 돈이나 빨아 먹을 것이 없으면 법도 취급 안 한다. 뒤에서 비리를 빨아 먹을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법에 잡아넣고, 돈이나 있는 사람은 잡아서 시끄럽게 해서 돈이나 뽑아 먹고 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약해도 크게 만들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잘 벌 수 있는 길은 범죄밖에 없으니까. 50대 남성 개별면접(2006.6.24).

제력만을 뜻하지 않았다. 돈벌이가 대부분 비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돈과 권력이 밀착되어 반사회주의적 범죄와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었다.

북한사회는 이제 욕망을 추동하는 매개자가 사상이념, 사회적 영웅에서 돈이 제일인 것으로 변화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점은 자본주의 시장으로 전진한 것으로 단순 평가하기 어렵다. 공적 담론에서는 외화벌이일꾼을 거의 모두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주민생활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극단적 간극은 불안한 사회에 대한 안전 욕구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현재로서는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작용은 현실적으로 체제권력에 순응하면서 광범위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만드는 현실로 나타났다. 국가권력이 붕괴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역설적으로 체제를 유지시키는 모순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는 북한의 급격한 변화 현실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뿐이다. 남북관계, 국제관계에 의해 주민생활은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현장조사에 의하면, 이미 주민들은 남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이 점에서 정권은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서울표준말을 쓰는 젊은이가 늘어나, “서울에서 전화왔다”라는 농담이 생길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⁶⁷⁾ 특히 중국과의 국경지대를 통해 비법유통과 함께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식적 접촉은 실질적인 경제생활형편과 직결되지만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와의 접촉 영향으로 인해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욕망 증폭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욕망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 징후에

67) 류경원, “철민아, 서울에서 전화왔다.” 『립진강』, 제1호(2007.11), 138~139쪽.

주목을 요한다. 이를테면 사랑의 내면적 요구와 개성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음은 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여성의 자존적 욕망이 물질 토대를 만들고 있고, 자각적 의식이 성장하는 힘은 기존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지점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변화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욕망 연구는 현장과 더욱 밀접한 조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부표> 피면접자 코드와 기초 인적 사항

코드	성별	연령대	직업	면접횟수
PS-1[PS-1-1]	여	20대	외화별이	2
PS-2[PS-2-1~PS-2-5]	남	40대	관리직	6
PS-3	여	40대	사무직	1
PS-4	남	40대	전문직	1
PS-5[PS-5-1~PS-5-3]	남	30대	전문직	4
PS-6	남	30대	외화별이	1
PS-7	여	40대	주부	1
PS-8	남	60대	노동자	1
PS-9[PS-9-1]	남	30대	사무직	2
PS-10[PS-10-1~PS-10-2]	남	40대	전문직	3
PS-11[PS-11-1]	남	40대	외화별이	2
PS-12[PS-12-1]	남	20대	노동자	2
PS-13	남	40대	노동자	1
PS-14	남	50대	전문직	1
PS-16	남	30대	노동자	1
PS-17	남	50대	노동자	1
PS-18[PS-18-1~PS-18-2]	남	30대	전문직	3
PS-19[PS-19-1]	남/여(부부)	30대/20대	관리직/노동자	2
PS-20	남	30대	관리직	1
PS-21	남/여(부부)	30대/20대	관리직/노동자	1
PS-22	여	20대	전문직	1
PS-23	남	30대	전문직	1
PS-24[PS-24-1]	남	40대	관리직	2
PS-25[PS-25-1]	남	30대	노동자	2
PS-26[PS-26-1]	여	50대	사무직	2
PS-27	여	30대	노동자	1
PS-28[PS-28-1~PS-28-3]	남	30대	사무직	4
PS-29[PS-29-1~PS-29-3]	여	40대	주부	4
PS-30	남	60대	관리직	1
PS-31	여	30대	기타	1
PS-32	여	30대	주부	1
PS-33[PS-33-1~PS-33-3]	남	40대	노동자	4
PS-34[PS-34-1]	남	30대	전문직	2
PS-35[PS-35-1]	남	40대	노동자	2
PS-36[PS-36-1~PS-36-2]	여	50대	외화별이	3
PS-37	남	60대	전문직	1
PS-38	남	40대	관리직	1
PS-39	남	30대	노동자	1
PS-40[PS-40-1]	남	40대	전문직	2

주: 면접조사 진행과정 중 피면접자 코딩작업의 착오로 PS-15는 결번처리함.

참고문헌

- 김상현, “영원한 삶의 노래: 한 정치일군의 수기,” 『조선문학』, 2002년 11호.
- 김정일, 『김정일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김창수, “차번호 ‘만- 하나,’” 『조선문학』, 2000년 10~11호.
- 김형수, “정향꽃,” 『조선문학』, 2006년 4호.
- 김혜성, “열쇠,” 『조선문학』, 2004년 4호.
- 김홍철, “꽃강냉이: 한 공훈광부의 이야기,” 『조선문학』, 2000년 9호.
- 리신현, 『강계정신』(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 박원성, “광맥,” 『조선문학』, 2001년 3호.
- 박윤, “그대의 심장,” 『조선문학』, 2006년 5호.
- 박일명, “눈보라는 후덥다,” 『조선문학』, 2003년 5호.
- 백보흠·송상원, 『영생』(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97).
- 변창률, “영근이삭,” 『조선문학』, 2004년 1호.
- 석남진, 『비결』(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 송출언, “뜨거운 눈,” 『조선문학』, 2004년 10호.
- 양해모, “결석대표,” 『조선문학』, 2000년 10호.
- 오광철, “높은 요구,” 『조선문학』, 2000년 11호.
- _____, “대학시간,” 『조선문학』, 2003년 8호.
- 오영재, 『대동강』(평양: 문예출판사, 1985).
- _____, “위대한 령도자, 복 받은 시인,” 『조선문학』, 1997년 2호.
- _____, “이쉬워도 보람 있는 삶: 한 비전향장기수에게,” 『조선문학』, 2001년 5호.
- 정영중, “후사경,” 『조선문학』, 2001년 1호.
- 최련, “축복,” 『조선문학』, 2006년 4호.
- 최치성, “인생의 한여름에,” 『조선문학』, 2006년 6호.
- 편집부, (머리말) “당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문제성 있는 문학작품을 대담하게 창작하자,” 『조선문학』, 1983년 4호.
- 한웅빈, “스물한 발의 ‘포성,’” 『조선문학』, 2001년 4~6호.
- 허문길, “육망, 고민, 교훈……: 다부작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을 창작하고,” 『조선문학』, 2006년 4호.

로동신문, “사설: 선군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위업의 필승불패의 기치이다,”
『로동신문』, 2003년 3월 21일자 1면.

공영길 취재·최진이 정리, “‘제18호 관리소’의 흑막(제1회),” 『림진강』(서울:
림진강출판사), 제2호(2008).

김경훈, 『대한민국 욕망의 지도』(서울: 위즈덤하우스, 2006).

노귀남, “체제위기 속의 북한문학의 대응과 변화,” 『민족문화논총』, 제29집
(2004).

류경원, “철민아, 서울에서 전화왔다!” 『림진강』, 제1호(2007).

_____, “조선의 경제관료 극비 인터뷰: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중),” 『림진강』,
제2호(2008).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경제』(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5).

양문수 외, 『북한의 노동』(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7).

임순희, 『북한 여성의 삶』(서울: 해냄, 2006).

노귀남, “사회정치적 생명과 인민의 삶,” 『문학아카데미』, 2003년 6월 27일 등
록. <http://www.munhakac.co.kr>.

데일리NK, “北주민 ‘생활총화’ 현장녹음 최초공개,” 『데일리NK』, 2006년 7
월 24일자. <http://www.dailynk.com>.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North Korean People's Private Desire

Choi, Wan-Kyu(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Noh, Gwi-Nam(Kyungnam University)

This research focuses on 'private desire' in order to understand North Korean people's normal life microscopically. After the 'Arduous March', regarding of homo desidero, the biggest change appears to be the priority of money. For example, a leading member who controls fortunetellers earns money through cooperating with them.

There are three types of desire. First, in the political-oriented realm negotiable attitudes in achieving personal goals by using force. Due to many changes of civilians, people are very unsatisfied. In short, negotiation and conflict were see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author describes types of characters showing critical awareness. We will see that critical consciousness against power is growing.

Second, the technical expert-type shows a strong desire to reach the upper class. If you are to be a leading member, required a bachelor's degree is required. Education guarantee's class status. However, such

desires can not be directly expressed in novels. Scientists must view the world through groupism, a sense of loyalty for the Party, and serve self-reliance.

Third, North Korean people usually think that if there is a lack of money, life is over. This type of survivalist-economy shows powerfully the need for money. There is frequently anti-social crime related to money and power irregularities.

Mediator to desire has changed from ideology and a social hero to omnipotent money.

It is hard to say that it simply moves to a capitalist market. In literature, authors negatively describe most workers earning foreign money. However, the opposite circumstance appears in the real world. It separates public sectors from private sectors. The need for safety against an insecure society is extremely affected. In actuality, adopting to powerful authority while making wide ties to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this duality sustains the system paradoxically.

Keywords: Private desire, Homo Desidero, Types of characters, Social-political life, Farmer's markets, Mediator to desire, Politics-oriented, Finance-oriented, Expert skill-oriented, Capitalistically